

안전하게 지켜줄게

매년 이맘때쯤이면
우리는 부지런히 봄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매화의 개화 소식을 알리는 뉴스와
새싹이 움트는 나뭇가지
조금씩 느리게 찾아오는 저녁과
한결 부드러워진 바람을 맞으며
우리는 반갑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진짜 봄이 오나 보다”

여러분은 요즘 어디에서
봄을 발견하고 계시나요?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立春)을 지나
비가 내리고 싹이 튼다는 우수(雨水)를 앞둔 지금
봄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가장 설레는 봄을 느낍니다.

이젠 진짜 봄이 오나 봅니다.

CONTENTS

Vol.85 2024년 2월 호

발행일

2024년 2월 14일

발행인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발행처

경상남도교육청

(51430)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41

Tel. 055-278-1788

편집인

홍보담당관 이동춘

기획총괄

홍보담당사무관 전영부·주무관 김아경·채선영

기획·취재·편집·인쇄

경상남도교육청 홍보담당관·(주)큰그림

더 특별한 경남교육

04 2024년 요즘 아이

요즘 아이,
겨울방학 때 뭐하니?

08 수업이 미래다

유·초 연계 이음학기
시범 운영 사례 〈고성유치원〉

12 안전하니까, 경남교육

아이로 지킴이

16 우리가 그린 경남교육

2023 유네스코 학교
통영 제석초등학교



더 즐거운 경남교육

20 열정을 만나다

KBS창원방송총국 송지원 아나운서

24 힐링필링 경남교육

체험할 수 있는 진해 여행

28 방구석 영화관

30 경남교육캘린더

32 찰칵! 우리 학교 명장면

거창 고제초등학교

34 우리 아이 튼튼 정보

한의사 살빼남과 알아보는
건강한 10대 다이어트

더 유익한 경남교육

36 학교폭력 예방 웹툰

38 경남교육정책

2024 한 발 더 다가서는
경남교육 5대 약속

42 진로진학 나침판

2028 대입제도 개편 확정안 안내

44 경남교육뉴스

46 의정 소식

48 도정 소식

50 독자 댓글 이벤트

51 독자퀴즈



애들아 너희는 어떤 방학을 보내고 있니?

요즘 아이들의 겨울방학 생활 엿보기

유튜브에서 ‘청소년 겨울방학’을 검색하면 수많은 영상이 나타난다. 대부분은 겨울방학에 꼭 해야 하는 학습에 관한 영상들이다. 학기 중간에 있는 여름방학과 달리 겨울방학은 새 학년 진급을 준비하는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어릴 적 보냈던 겨울방학을 떠올려보라. 우리들 역시 공부 말고도 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요즘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3월이면 기다렸다는 듯 꼭 피어날 꽃들처럼, 저마다의 봄을 준비하며 슬기롭게 겨울방학을 보내고 있는 아이들. 네 명의 요즘 아이가 알려주는 겨울방학 생활을 들어보았다.

내가 생각하는 겨울방학이 좋은 이유

1

겨울방학을 맞아 한자리에 모인 아이들에게 각자의 방학 계획표를 그려 달라고 했다. 비어있는 24시간 계획표를 보며 아이들은 물었다. “제가 바라는 계획을 그려요? 아니면 실제 생활을 그려요?” 이렇게 묻는 걸 보니 아무래도 계획과 생활에 다른 점이 있나 보다. 요즘 보내는 방학 생활을 그려 보라고 했더니 아이들은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부터 표시를 했다. 살짝 엿보니 다들 평소보다 기상 시간이 늦다.

2024년 요즘 아이

2024년에 새롭게 시작하는 코너 <요즘 아이>는 어른들은 잘 모르는 요즘 아이(10대 청소년)들의 생각, 관심사, 문화, 트렌드 등을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매달 다른 주제로 진행되는 <요즘 아이> 기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한걸음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친한 친구들과 처음으로 유럽 여행을 가게 됐어요.
창원 외동초등학교 6학년 윤희람

강의를 듣고, 문제지를 풀면서 시험 준비를 하고 있어요.
창원기계공고 1학년 김언

목표는 6학년이 돼서 피구부에 들어가는 거예요.
진해 웅천초등학교 5학년 김송

책 읽 권을 읽겠다는 마음으로 최근에 독서를 시작했어요.
무학여자중학교 2학년 이현서

<요즘 아이> 인터뷰 출연자 모집 안내

<요즘 아이>는 경남도 내 10대 청소년들의 생각, 관심사, 문화, 트렌드 등을 인터뷰 형식으로 들어보는 코너입니다. 인터뷰에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5만 원권 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자세한 모집 안내 및 참여 신청은 큐알코드를 통해 확인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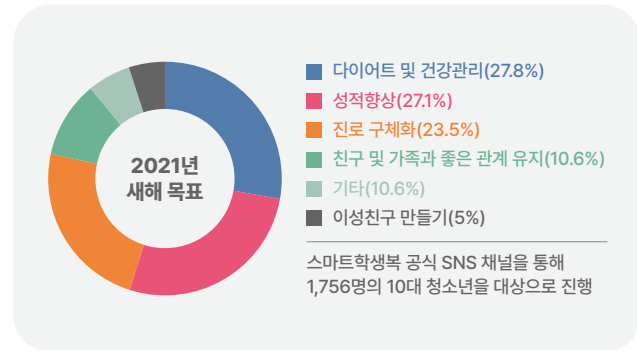


이현서 학교 다닐 때는 아침 7시에 일어나야 해서 늘 일찍 자야 했거든요. 방학 때는 늦잠을 잘 수 있어서 좋아요.

그렇다. 방학의 가장 좋은 점은 역시 꿀맛 같은 늦잠이다. 다 른 좋은 점은 무엇인지 문자 계획표에 ‘노는 시간’을 네 번 그 려 넣은 송이가 대답했다.

김송 친구들이랑 더 많이 놀 수 있어서 좋아요. 학교 다닐 때 는 마치고 학원에 가야 되니까 노는 시간이 부족하거든 요. 방학 때도 여러 학원에 다니긴 하지만 중간중간 노 는 시간이 많이 생겼어요. 요즘엔 친구들과 버스를 타고 다른 동네에 놀러 가요. 코인 노래방에도 가고, 트램펄 린장에도 가고요.

김언 여가 시간이 늘어나서 좋아요. 요즘엔 복싱 학원에도 다 니고, 트럼펫도 배우고 있어요. 틈틈이 게임도 하고 개 인 운동도 하고요.



겨울방학에 꼭 하고 싶은 일

2

완성된 겨울방학 계획표는 저마다의 24시간으로 채워져 있 었다.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각자 이번 방학에서 무엇 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 알 수 있었다. 2021년 한 교복 회사 에서 1,700여 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 과에 따르면 ‘청소년이 새해 가장 이루고 싶은 목표’는 다이 어트 및 건강관리, 성적 향상, 진로 구체화 순인 것으로 나타 났다. 네 명의 아이들은 어떤 목표를 세웠을까.

이현서 겨울방학이 지나면 중학교 3학년이 된다는 생각에 평 소보다 공부 걱정이 커졌어요. 그래서 중학교 공부를 미리 해두는 것이 가장 큰 목표고요. 매년 새해가 될 때 마다 책 읽기를 목표로 세웠는데 늘 지키지 못했거든 요.(웃음) 이번 겨울방학 때는 책 열 권을 읽겠다는 마 음으로 최근에 독서를 시작했어요. 지금 읽고 있는 책은 파친코예요.

김언 제가 다니는 학교는 특성화고라 최소 2개 이상의 자격 중을 따라 취업에 유리해요. 그래서 하루 중 틈틈이 동 영상 강의를 듣고, 문제지를 풀면서 시험 준비를 하고 있어요. 곧 있을 승강기 자격증 시험에 꼭 붙고 싶어요.

윤희람 1월에 친한 언니, 친구들과 처음으로 유럽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부모님 없이 저희들끼리 가는 거라 긴장되고

설레기도 해요. 요즘엔 여행 준비를 하느라 <벌거벗은 세계사>나 <25시 특파원>을 보면서 공부하고 있고요. 또 다이어트 겸 체력을 기르고 싶어서 헬스장에 다니고 있어요.

김송 이번 방학의 가장 큰 목표는 6학년이 돼서 피구부에 들 어가는 거예요. 원래 학교에서 밴드부를 했었는데 친구 들이 같이 피구부를 하자고 해서 요즘 매일 학교 운동장 에서 피구 연습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돈 모으기에 요. 새 학기가 되면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미리 모으려고요. 지금 제일 갖고 싶은 건... 아이폰이예 요! 세 번째는 다이어트인데 솔직히 아무 노력 안 하고 있어요.(웃음)

우리에게 겨울방학이란

3

언제나 짧게 느껴져 더욱 소중한 우리들의 방학. 하루하루 공 부하고, 놀고, 추억을 쌓으며 자신도 모르게 쑥쑥 자라고 있 을 아이들에게 이번 겨울방학의 의미를 물어보았다.

김송 방학이 끝나면 초등학교 마지막 학년이 되거든요. 저에 게 이번 방학은 초등학교 6학년 생활을 바꿀 수 있는 전 환점 같아요.

이현서 중학교 3학년을 알차게 보낼 수 있게 준비하는 시간!

김언 저에게 이번 방학은 ‘무조건 잡아야 되는 기회’예요. 아 까도 말했듯 제가 준비하는 자격증 취득이 취업과도 연 결되는데 자격증 시험은 주로 겨울방학에 몰려 있거든 요. 그리고 방학은 이것저것 해볼 수 있고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집에만 있는 것보단 일단 밖으 로 나가서 뭐든 해보려고 해요.

윤희람 학교 다닐 때는 하루하루가 너무 바빴어요.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합창단 연습까지 마치면 하루가 다 갔거든 요. 그래서 방학은 저에게 소중한 휴식이에요. 특히 이 번 방학은 초등학교 마지막 방학이니깐 ‘일단 놀고 본 다’라는 마음으로 신나게 보내고 싶어요! 그러니 부모님 도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웃음)



• MINI INTERVIEW •

옛날 아이들의 겨울방학은 어땠을까?

박상미(보호자) 우선 방학 숙제가 거의 없어요. 우리 때는 숙제가 참 많았잖아요. 그래서 개학 날이 다가오면 미워 뒀던 숙제와 일기를 한꺼번에 한다는 부담이 있었는데, 요즘은 숙제가 있더라도 아이들의 자율에 맡기는 것 같아요. 또 요즘 아이들은 본인 이 원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확고하잖아요. 그래서 제빵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방학 동안 경험하는 활동도 참 다양해졌죠.

김은희(보호자) 방학은 그야말로 자유였죠. 아침에 눈뜨면 드는 생각이 “오늘은 뭐하고 놀까?”였어요. 공부에 대한 부담이 확 실히 적은 시절이었어요. 그때는 스마트폰도 없었고 지금처럼 체 형 프로그램 같은 것도 거의 없었으니 겨울방학엔 동네 친구들이 랑 얼음 타고 개구리 잡고 눈 내리면 눈 맞고 놀고 그랬죠. 지금 아이들이 들으면 심심하다 느끼겠지만 하루하루 참 재밌었어요. 얼마 전, 방학이 되면 아이들의 스마트폰 사용량이 급증한다는 기 사를 읽었어요. 스마트폰은 추억을 만들어주지 않잖아요. 스마트 폰 바깥에서 친구들과 즐거운 추억을 많이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유·초 연계 이음학기 이음학기 덕분에 초등학교 생활이 기다려져요! 고성유치원



새로운 교실,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
매년 2월은 새 학년 진학을 앞두고 설렘과 긴장이 높아지는 시기다.
특히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에 앞둔 보호자는 아이가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과 함께 선행 학습과 사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다. 초등학교 입학은 아이에게도 보호자에게도 처음 겪는 낯선 변화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아이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시작된 정책이 있다.
개정 누리과정과 초등 교육과정 연계 수업을 통해 아이들의 성장을 부드럽게 잇는 ‘이음학기’다.
현장에서 ‘이음학기’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오는지 고성유치원의 사례를 통해 만나보자.



배우고 놀이하며 초등학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음학기’ 운영이 교육과정의 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유아들의 초등학교 초기 적응을 도와 안정적인 성장에도 도움을 주는 것이죠.” 최미진 교사

그렇다면 고성유치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이음교육을 진행했을까? 고성유치원은 <마을애(愛)서 자라는 고성 아이들! 오색빛깔 교육으로 잇다>라는 주제로 계절, 유치원의 놀이주제, 초등학교의 단원, 학사, 유아와 학생의 흥미 등을 고려해 이음교육 내용을 구성했다. 크게는 놀이를 통한 환경·생태교육 프로젝트(자연과 이음, 환경과 이음, 놀이와 이음)와 관계 맺기를 통한 이웃 되기 프로젝트(이웃과 이음, 관계로 이음)로 나누었다.

아이들의 성장은 이어진다

이음학기는 5세 유아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입학 전 보호자교육, 놀이중심 언어교육, 1학년 통합교과(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연계, 범교과(환경, 인성, 안전 등) 연계 수업 등을 통해 초등학교 입학 적응을 집중 지원하는 학기를 뜻한다. 지난해 경남교육청은 총 20곳의 유치원을 선정해 이음학기 시범 운영을 지원했고, 고성유치원은 고성 대흥초등학교 1학년 학급과 연계해 이음학기를 운영했다. 고성유치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맡은 최미진 교사는 시범 운영을 통해 ‘이음학기’의 필요성을 확실하게 느꼈다고 말한다.

“‘이음학기’는 유치원에서의 배움과 경험이 초등학교까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면 유치원에서 놀이했던 ‘아나바다 장터’를 초등학교 1학년 [통합] 겨울에서 학습하며 아나바다에 담긴 배움의 깊이와 폭을 확장하는 것이지요. 또한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과 함께

놀이와 체험 중심의 활동 연계 (놀이를 통한 환경·생태교육 프로젝트)

자연과 이음	주제	우리와 자연의 만남
	활동내용	고성행복교육지구 마을교육연계 고성 동동숲 작은 도서관
	누리과정(5세)	자연탐구 - 자연과 더불어 살기
	성취기준(초1)	통합[여름] [2슬04-03]
환경과 이음	주제	에너지를 절약해요
	활동내용	미션! 우리가 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법
	누리과정(5세)	자연탐구 - 자연과 더불어 살기 예술경험 -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성취기준(초1)	통합[여름] [2바04-01]
놀이로 이음	주제	열씨구 좋다! 전통놀이 한마당
	활동내용	고성행복교육지구 마을교육 연계 열씨구 좋다! 전통놀이 한마당
	누리과정(5세)	자연탐구 - 자연과 더불어 살기 사회관계 - 사회에 관심 가지기
	성취기준(초1)	통합[가을] [2즐06-03] [2슬06-03]

관계 맺기를 통한 협력 활동 (관계 맺기를 통한 이웃 되기 프로젝트)	
이웃과 이음	주제 아끼고 나누고 바꾸며 다시 써요
	활동내용 아나바다 하며 나누어요
	누리과정(5세) 자연탐구 - 자연과 더불어 살기 자연탐구 -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
	성취기준(초1) 통합[거울] [2바08-01]
관계로 이음	주제 어서와! 초등학교는 처음이지?
	활동내용 슬기로운 초등생활 전수받기
	누리과정(5세) 사회관계 - 사회에 관심가지기 의사소통 - 듣기와 말하기
	성취기준(초1) 창의적 체험활동

“예를 들어 자연과 이음은 ‘우리와 자연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고성행복교육지구 마을교육과 연계하여 고성 동동숲 작은 도서관에서 자연 관찰 생태 교육을 진행했어요. 대홍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과 곤충 퀴즈 놀이를 하면서 초등학교에 가면 공부만 할까 봐 걱정하던 아이들의 걱정 어린 생각들이 사라졌어요. 이후 마을 선생님이 동동숲에서 생태 교육을 진행해 주시며 자연 속에서 아이들이 어우러져 우정을 다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이웃과 이음에서는 아나바다 장터인 ‘함께라서 더 행복한 [인:다] 마켓’을 운영했어요. 고성유치원 열매반과 대홍·동광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이 가져온 물건들을 고성유치원 강당에 모아 교육공동체가 함께 물건을 사고 팔았지요. 이렇게 모아진 기부금은 고성군청에 보내 고성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해졌답니다!”



01

‘이음학기’ 덕분에 초등학교가 더 기대돼요!

유아 누리과정과 초등 교육과정이 잘 이어지기 위해선 유치원 교사와 초등학교 교사 간 탄탄한 이음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서로의 전문성을 신뢰하고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의 성장 발달에 가장 적합한 이음교육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희는 고성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는 ‘고성 교육과정 아카데미·행복학교 네트워크’에 참여하면서 유·초 연계 이음학기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원이 만나 교육과정, 학급운영 등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던 것이죠. 다만 유치원과 학교가 차로 15분 정도 떨어져 있어서 자주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대신에 온라인으로 거의 매일 소통을 했고, ‘시범 운영을 안 했으면 어쩔뻔 했어!’ 싶을 정도로 초등학교 선생님께 많이 배웠어요. 유치원과 초등학교 1학년은 같은 발달단계로서 신체, 정서, 언어 등 모든 측면에서 이어져 발달한다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되었죠. 교실 책장에는 초등학교 생활의 이해를 돕는 책들이 꽂혀 있는데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직접 추천해 주신 책들이에요. 덕분에 아이들은 책을 읽으며 자연스럽게 초등학교에 대한 궁금증을 키워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고성유치원 열매반 아이들은 이음학기 경험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언니, 오빠들이 초등학교에 가면 쉬는 시간에 바깥에서 놀 수 있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을 수 있다고 알려줘서 좋았어요. 또 쉬는 시간은 10분, 공부 시간은 40분이래요. 공부를 잘할 수 있을지 걱정되지만 수학 수업이 궁금하고, 도서관에서 책도 읽어보고 싶어요.”

“누나, 형들이랑 전통놀이와 아나바다 마켓을 같이 하면서 노는 게 재밌었어요. 대홍초등학교에 가봤는데 유치원보다 책상이 크고 서랍도 있고, 한 사람에게 하나씩 다 준다고 해서 기분이 좋았어요. 빨리 초등학생이 되고 싶어요.”

보호자의 반응 또한 긍정적이다. 2023년 <유·초 연계 이음학기>를 경험한 보호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93.8%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음학기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92.4%였으며, 효과적인 연계 운영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유치원, 초등학교 간의 연계 수업 확대가 58.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상남도교육청은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에는 <유·초 연계 이음학기> 운영을 20곳에서 80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초등학교와의 연계 수업, 행사를 통해 아이가 초등학교에 대해 기대감을 보이고, 친숙함을 느끼는 것 같아서 아주 만족하고 있어요. 2024년에도 다른 동생들이 이음교육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만남을 기다리는 3월

현재 고성유치원은 따뜻한 봄과 함께 찾아올 신입생을 맞이 위해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신입생을 위한 자료를 구입하고 원복, 가방과 같은 유치원 필수품을 꼼꼼히 챙긴다. 또한 졸업을 앞둔 유아들이 자신이 생활하고 놀이한 유치원을 소개하는 안내 자료를 만들며 재원생과 신입생 간 이음을 준비한다.

“유치원에 처음 온 아이들이 잘 적응 할까, 밥은 먹고 있을까, 친구들은 잘 사귄다 여러 걱정을 하실 텐데요. 이런 걱정 어린 보호자님의 마음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유치원에서 보강해 드릴 수 있는 한가지는 유치원 교육공동체 모두가 바쁘게 움직이며 유아의 입학 적응을 돕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사는 유아의 흥미와 관심을 파악하여 초기 적응을 돕고자 노력하고 유아의 생각과 놀이를 따라 갑니다. 교직원들은 유아들이 안전한 곳에서 기본 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합니다. 모두가 아이들만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유치원을 믿고 지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초 이음교육 1편-누리야 학교가자
초등학교 입학 전 유아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 제작한 영상입니다.



02



03

- 01 고성 대홍초, 동광초 1,2학년과 함께한 인:다 마켓
- 02 전통놀이를 함께하며 가까워지는 아이들
- 03 고성 동동숲 작은도서관에서 자기소개를 하는 아이들
- 04 고성 대홍초 선생님과 함께한 퀴즈 놀이 시간



04



통학안전 파수꾼, 아이로(路) 지킴이



▶진해구 장천초등학교 등굣길



함께한 사람들

장천초등학교 학생 • 6학년 박채영·
임현민·안소연·이성현 • 5학년 안선우
• 2학년 이채은

**아이로 지킴이 교통안전지도 자원봉
사자, 경남녹색어머니연합회 장천초
학교회장, 장천초 6학년 박채영 엄마** ·
전시연님

**아이로 지킴이 교통안전지도 자원봉
사자, 장천초 6학년 이성현, 2학년
이채은 엄마** · 변남경님



아이로지킴이 홍보영상

‘우리에게는 매일 등하굣길을 함께하는 멋진 영웅이 있어요, 항상 우리 곁에서 등하굣길을 안전하게 지켜줘요.’ 이 영웅의 정체는 바로 ‘아이로 지킴이’라 불리는 동행 교통안전지도 자원봉사자들이다. ‘아이로 지킴이’는 매일 아침 어린이들을 데리고 안전하게 등하교하는 보행 프로그램으로, 2023년 처음 시행됐다. ‘아이로 지킴이’ 시작을 함께 한 보호자 전시연, 변남경 지도 봉사자, 그리고 여섯 명의 학생과 함께 창원시 진해구 장천초등학교 등굣길을 걸어보았다.

하나 둘 셋, 3초가 주는 안전 배워요

‘아이로 지킴이’ 교통안전지도 자원봉사자와 아이들을 만난 곳은 진해 장천동의 대각선 교차로 앞. 매일 아침 8시 10분, 지도 봉사자와 동행 등교하는 아이들이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다. 장천초등학교는 지난해 1학기 3개 노선으로 시작해 5개 노선까지 아이로 지킴이 구간을 늘렸다. 이 중 1개 노선만 지도 봉사자와 아이들 동행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4개 구간은 교통안전 취약 지점에 지도 봉사자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보통 교통안전지도 자원봉사자와 동행 등교하는 아이들은 등굣길이 익숙하지 않은 1~2학년 학생들이다. 마트 앞 교차로에서 장천초등학교까지 거리는 약 1km. (학교와 인접해 있는 아파트 단지를 가로질러 가면 800m 정도로 거리가 단축되지만,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으로 등교 시간에는 아이들의 아파트 출입이 어렵게 됐다. 이 때문에 아파트 바깥 담벼락을 따라 걸어가야 해 실제 거리는 1km 정도 된다.) 등굣길에는 교차로를 비롯해 횡단보도가 여럿 있는데, 여기서 지킴이의 역할이 빛을 발한다.

“저희가 손으로 누르는 호루라기를 갖고 다니거든요. 아무리 파란불로 신호가 바뀌어도 호루라기 소리가 나지 않는 이상은 건널 수 없게 하려고요. 파란불로 신호가 바뀐 뒤 하나, 둘, 셋을 센 뒤에야 호루라기로 신호



01



02

〇〇

바람이 있다면 아이로 지킴이, 녹색어머니회, 그리고 경찰청 소속의 교통안전지킴이와 지자체 소속 시니어 교통안전봉사자 간에 보다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했으면 하는 거예요.

〇〇

- 01 아이들은 항상 길 안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원칙
- 02 경남교육청의 통학 안전을 상징하는 가방안전덮개
- 03 선명한 노란색으로 비 오는 날에도 눈에 띄는 안심우산
- 04 경남도 내 통학로 안전지수를 알 수 있는 안전아이로

를 주고, 깃발로 길을 열어 아이들이 건너게 해요. 1년 정도 하니 아이들도 이제는 파란불로 바뀐 뒤 잠시 주변을 살피다가 건너는 아이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전시연** 아이로 지킴이 교통안전지도 자원봉사자

파란불로 바뀐 후 3초의 여유가 필요하다면, 빨간불로 바뀌기 전 10초도 중요하다. 파란불이 10초밖에 남지 않았을 때는 무조건 기다렸다가 다음 신호에 건너도록 교육하고 있다. 이 외에도 아이들과 등굣길을 함께하며 과속 단속 카메라, 도로와 보도 간 울타리 등 교통안전과 직결된 시설들을 점검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아무래도 저학년 아이를 둔 맞벌이 부모님들 호응이 높아요. ‘아이 혼자서 어떻게 안전하게 등학교 할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 학교는 모든 지킴이가 보호자들이거든요. 같은 마음을 가진 보호자가 아이로 지킴이가 되어 아이들을 도와주니 아무래도 더 마음이 놓인다고들 하세요. ‘수고한다’며 간식을 주고 가는 분들도 계시고요. 등학교 안전뿐만 아니라 저희가 있음으로 해서 학교 폭력 예방도 되고, 두루 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변남경 아이로 지킴이 교통안전지도 자원봉사자

안전한 통학환경, 결국 어른들의 몫

아이로 지킴이 프로그램은 경남도 내 모든 학교가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 학생 교통사고가 발생했거나, 도로 여건이나 위험 요소, 공사 등의 문제로 통학 안전과 관련해 민원이 다수 발생한 학교가 주 대상이다. 2023년 기준으로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거제, 양산, 하동, 거창 29개 학교가 아이로 지킴이 프로그램과 동행했다.

장천초등학교가 아이로 지킴이 프로그램에 함께한 이유에도 아픈 기억이 깃들어 있다. 2023년 4월, 횡단보도를 건너던 5학년 어린이가 시내버스에 치여 중상을 입었고, 치료를 받던 중에 결국 사망한 사건 때문이다. 당시 어린이는 파란불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에 진입했지만, 시내버스가 신호 변경을 예측하며 서둘러 출발하는 바람에 빚어진 참사였다. 아이들이 아무리 교통질서를 잘 지켜도, 운전자도 교통 규범을 지키지 않고 안전 시스템이 미비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또렷이 보여준 사례였다. 특히 당시 사고가 났던 구간은 내리막길이라서 사고 피해가 클 수밖에 없었고, 평소에도 장천부두를 중심으로 물류센터로 향하는 대형 차량이 많아 예의 주시하고 있던 곳이었다.



03

이미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가 예정돼 있었지만 행정 처리 문제로 설치가 늦어졌고, 그사이 사고가 발생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현재는 내리막길 방향으로 시속 30km 속도 제한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향후 보행자 중심의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로 교통 체계도 바뀔 예정이다.

“또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아이로 지킴이, 녹색어머니회, 그리고 경찰청 소속의 교통안전지킴이와 지자체 소속 시니어 교통안전봉사자 간에 보다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했으면 하는 거예요. 통학로 주변으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남아있는데, 기관 간에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해지면 적재적소에 지킴이를 배치할 수 있어서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문혜정** 장천초 교감

3월 새 학년 새 학기가 시작되면 다시 아이들의 등굣길이 시작되고, 아이로 지킴이 활동도 재개된다. 매일 아침, 아이의 안녕한 하루를 비는 것과 더불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통학 환경을 갖춰주는 일. 경남교육청의 통학 안전 3종 세트(가방안전덮개, 안심우산, 안전아이로)와 더불어 ‘아이로 지킴이’가 아이들의 안전한 등굣길을 완성하는 데 힘이 되길 기대한다.

아이로 지킴이

교통안전지도 자원봉사자가 정해진 통학로를 이용해 어린이를 데리고 안전하게 등학교하는 경남형 동행 교통안전지도 프로그램. 운영 형태가 ‘걸어가는 스쿨버스’와 같다고 해서 ‘워킹스쿨버스’로도 불린 바 있음. 등학교를 하면서 올바른 보행 습관 교육을 병행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

2024년 아이로 지킴이 사업, 이렇게 달라집니다.

- 1인 기준 프로그램 연간 지원금액 예산이 최대 500만원으로 인상되어 등학교 빠짐없이 봉사활동이 가능합니다.
- 학교마다 봉사시간이 다르더라도 활동 관리를 쉽게 하고 운영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봉사활동비를 시간당 11,021원에서 1회 13,000원으로 확대합니다.
- 자원봉사자 위촉과 프로그램 운영을 돕기 위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위촉 관련 서식 추가, 조끼 보급 등)

지원 학교와 자원봉사자 인원도 확대됩니다.

2023	예산	1억 9천 8백만원
	인원	91명
	운영	29개교, 71개 노선
2024	예산	9억
	인원	180명
	운영	현재 52교, 134명 신청 참여학교 추가 모집중

·아이로지킴이 프로그램 지원학교 추가 모집 : 2024. 2. 7(수)까지

04



통영 제석초등학교는 2018년 유네스코한국위원회로부터 ‘유네스코 학교’로 지정됐다. 지구촌 국제화로 국가 간 상호 연결성이 강해진 지금, 저 땅의 문제가 이 땅의 문제가 될 수 있고, 타인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공존의 가치를 이해하고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세계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유네스코 학교의 지향점이다. 온 세계가 함께 행복해지는 길에 환경 문제를 외면할 수는 없는 법. 유네스코 학교 7년 차, 통영 제석초등학교에서 펼쳐지고 있는 환경교육은 어떤 모습인지 들여다보았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어요 ‘유네스코 학교’ 통영 제석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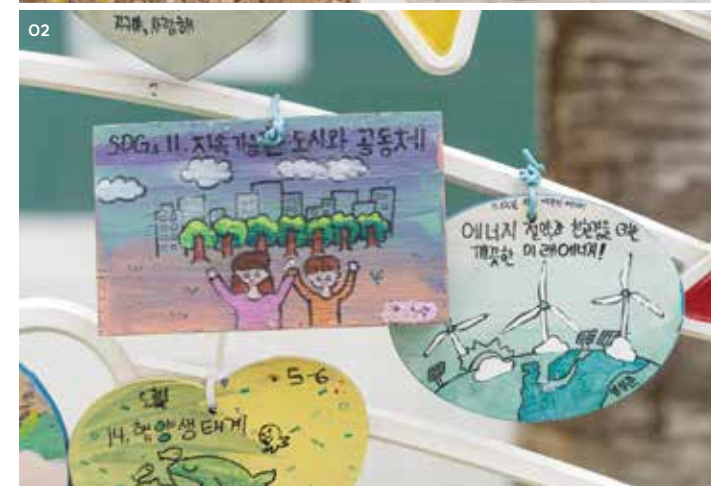
STORY 1

지속 가능한 미래를 생각하는 어린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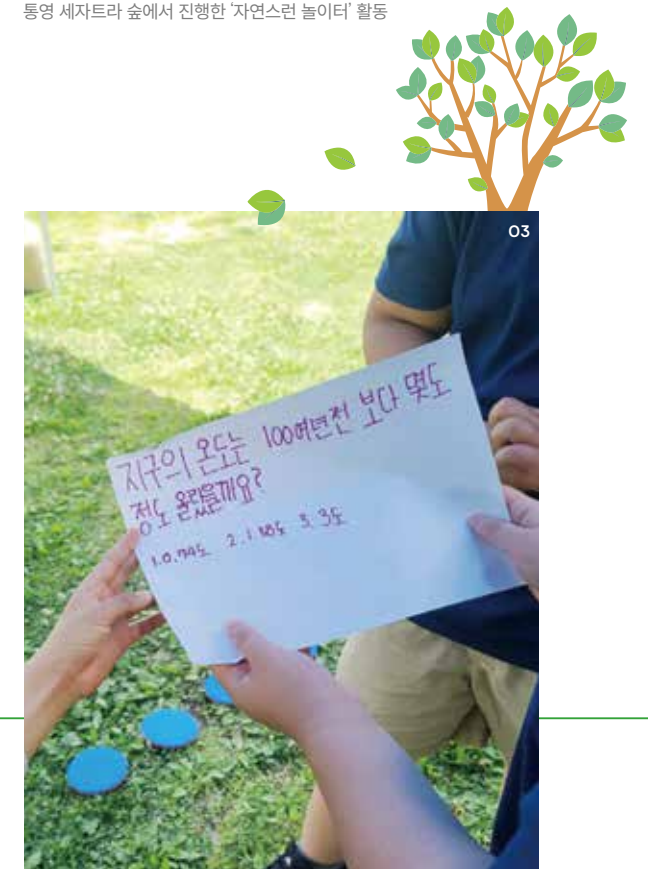
제석초등학교는 2018년 유네스코한국위원회로부터 ‘유네스코 학교’로, 2021년에는 경남형 혁신학교인 ‘행복학교’로, 2023년에는 ‘유니세프 아동친화학교’로 지정됐다. 지정 기관은 다르지만 지향점을 들여다보면 서로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행복학교가 민주성, 공공성, 미래성, 지역성을 기본으로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유니세프 아동친화학교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학생들이 학교의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문화를 만들고자 한다. 여기에 유네스코 학교의 ‘공존’이라는 가치를 더하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지향하고 있음이 보인다.

제석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입학할 때 선물로 화분과 친환경 가방을 선물할 만큼 환경교육에 진심인 학교다. 입학과 함께 자신의 식물을 돌보며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고, 학년별 텃밭을 통해 생태적 감수성을 익힌다. 또 매년 학년별로 생태환경과 관련된 프로젝트 수업을 하는데, 여기에는 학년별 수준에 맞춘 수업을 하기 위함도 있지만, 전교생이 1,100명이 넘는 대규모 학교라는 점도 이유로 작용했다. 대규모 학교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교생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환경교육을 하기 위해 환경교육을 교육과정 속에 녹여낸 것이다.

이미진 교사 “1학년에게는 페트병에서 비닐을 떼어 분리배출하는 것부터 에너지 절약법 등 간단하면서도 생활과 밀접한 환경 이야기를 알려줘요. 고학년이 되면 교실에서의 배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들에게 환경 문제 참여를 독려하기도 하고, 기업을 대상으로 변화를 제안하기도 하는 등 사회에 참여하는 기회도 열어주었습니다.”



- 01 아침마다 학교 주변 쓰레기를 줍는 ‘굿모닝 클린’ 활동
- 02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개인의 다짐을 담은 ‘씨앗열매’ 팻말
- 03 통영 세자트라 숲에서 진행한 ‘자연스런 놀이터’ 활동



STORY 2

우리도 사회를 바꿀수 있어요

특히 2021년 6학년 학생들과 함께한 ‘플라스틱 없·제(없는 제석) 프로젝트’는 학생들에게도 교사들에게도 특별한 기억을 많이 남겼다. 코로나 상황으로 배달 음식 수요가 늘고 플라스틱 사용량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던 시기, 학생들은 ‘플라스틱 없·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실천했다. 가족이 일주일 동안 사용한 플라스틱의 양을 살펴보고, <플라스틱 섬>이라는 책과 다양한 기사를 통해 플라스틱을 줄여야 하는 이유를 적극 알아보는 한편, 통영의 해양환경 전문가를 초빙해 이야기를 듣는 시간도 마련했다. 이 모든 수업은 국어 과목 속 ‘주장과 근거 판단’, 도덕 과목 속 ‘함께 살아가는 지구촌’ 등의 교과과정과 연계 진행됐다.

프로젝트가 무르익으며 학생들은 기업에 플라스틱 줄이기에 동참해 달라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는데, 단순히 ‘플라스틱을 쓰지 말아 주세요’가 아닌 대체품, 이벤트 등의 아이디어와 대안을 담은 편지를 기업에 보냈다.

그 결과 몇몇 기업으로부터 진심 어린 답장과 선물을 받은 기억도 가지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나도 사회에 목소리를 낼 수 있구나, 나도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구나’를 몸소 느낀 것이 큰 배움으로 남았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어린이들이 목소리를 내고, 그 목소리가 사회에 반영되는 것. 그렇게 제석초등학교 학생들은 세계시민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미진 교사 “무엇보다 프로젝트가 끝난 후 학생들의 태도가 달라진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학교급식에 시리얼과 종이컵, 우유가 제공된 날이었는데, 학생들이 ‘국그릇에 부어서 먹으면 되니까 종이컵을 사용하지 말자’며 일회용 종이컵을 모아 반납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또 전교 회장 출마 학생이 ‘부채 대여소 설립’ 같은 환경 관련 공약을 내놓는 것을 보고 놀랐던 기억도 있어요. 그동안 학교에서 했던 환경교육이 구호로만 그치지 않고 학생들 생활에까지 스며들었다는 생각에 많이 뿌듯했습니다.”

행복학교, 유네스코 학교, 유니세프 아동친화학교의 가치를 그대로 담아, 제석초등학교는 2024년 새 학년 새 학기에도 학생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환경교육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과정을 재구성한 학년별 프로젝트 수업부터, 유네스코 학교 동아리, 교내 자치회를 통한 환경 활동까지. 제석초등학교 학생들이 만들어갈 초록빛 내일이 기대된다.

- 04 진로프로젝트 수업과 연계 진행된 원예가드닝
- 05 재활용품을 사용해 볼링을 할 수 있는 ‘업사이클링’ 배우던 날
- 06 3학년 학생들이 직접 만든 메주
- 07 환경부와 함께 한 푸름이 이동환경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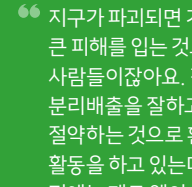
MINIINTERVIEW

포더피플 동아리 학생들을 만나보았습니다



6학년 이정빈

“페트병을 제대로 재활용하는 법을 배워서 엄마, 아빠에게 알려드렸던 적이 있어요. 엄마가 ‘라벨을 떼고 버려야 하는 줄 몰랐다’고 하셔서 어른들도 생각보다 모르는 게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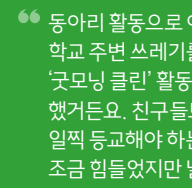
6학년 김재은

“지구가 파괴되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도 사람들이잖아요. 평소에 분리배출을 잘하고 전기를 절약하는 것으로 환경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는 제로 웨이스트와 관련된 이야기를 접하고 옷을 사는 일도 환경 파괴가 될 수 있구나 싶어 놀랐어요.”



6학년 배원우

“통영 세자트라 숲에서 페트병으로 볼링을 하는 ‘업사이클링’을 했던 것이 기억에 남아요. 환경이 오염되면 지구 온도가 상승하고, 그러면 동·식물은 물론이고 인간도 살 수 없어요. 놀이를 하면서도 우리가 왜 이런 놀이를 하고 있는지 생각하게 된다는 점이 의미 있고 좋았어요.”



6학년 이나경

“동아리 활동으로 아침마다 학교 주변 쓰레기를 줍는 ‘굿모닝 클린’ 활동을 했거든요. 친구들보다 일찍 등교해야 하는 건 조금 힘들었지만 날이 갈수록 학교 주변이 깨끗해지고 주민들도 동참해 주셔서 뿌듯했어요. 요즘은 환경 문제와 관련해 궁금한 게 있으면 자연스럽게 인터넷에서 찾아보기도 해요.”

“늘 질문하던 입장이었는데, 질문을 받으니까 좀 긴장되네요.”

항상 차분하고 매끄럽게 뉴스를 전달하던 송지원 아나운서가
인터뷰에 긴장했다니 놀랄 수밖에 없었다. 어쩌면 자신의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설렘을
떨림으로 착각한 게 아닐까. 대화하는 내내 송지원 아나운서가 얼마나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자부심을 갖고 임하는지 느껴졌기 때문이다.

꿈꿔서 좋았고, 해보니 더 좋았어요

KBS창원방송총국 송지원 아나운서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사이

KBS1 <뉴스9>와 라디오 <라이브 경남>을 진행하는 송지원 아나운서는 올해 5년 차 아나운서다. 2019년 7월부터 KBS 창원방송총국에서 근무하며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을 주로 담당해 왔다. 최근 지역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진행을 인정받아 한국아나운서연합회의 2023 한국아나운서대상 시사 부문 라디오 진행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 —— “앞으로 이런 상을 또 받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큰 상을 받았어요. 저는 상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 살았지만, 받으니까 좋았어요. 무엇보다 동기 부여가 된 것 같고요. ‘내가 틀리지 않았구나’ 앞으로로도 계속 이렇게 하라는 의미로 주신 것 같아서 기쁘게 받으려고요.”

아나운서라는 꿈은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사이 교집합을 찾으면서 발견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떨리지 않고 좋았다. 무엇보다 대화를 나누는 게 즐거웠다. ‘그럼 아나운서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초등학교 때부터 방송반 활동을 시작했다. 교내 방송을 하면서 음악도 틀고 진행을 해 보니 역시 재밌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꿈에 확신이 들었다.

☎ —— “방송반 활동처럼 꿈과 관련된 경험을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해요. 저는 잘하든 못하든 어떤 대회에 참가해 본다는지, 발표를 해본다는지 해서 스스로 답력을 길렀어요. 예를 들면 가창대회도 나가보고, 토론대회도 나가보고요. 사람들 앞에 설자리가 있으면 적극 참여했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 큰 도움이 됐던 것

66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일에 관심이 있다면
이 일을 꿈꿔도 좋아요.
어떤 친구들이
볼지는 모르겠지만
이 기사를 읽고
아나운서를 꿈꾸게 되거나
자신의 꿈에 힘을 얻는
친구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99

송지원



같아요. 그리고 책을 보다가 혹은 대화를 나누다가 모르는 단어가 생기면 꼭 찾아봤어요. 어휘력을 확장시키는 데 이만한 방법이 없거든요.”

아나운서는 호기심을 가지고 잘 듣는 사람

아나운서를 하려면 신문방송학이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혹은 국문학과로 전공을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 보통은 관련 학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방송국에는 다양한 전공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 ——— “저는 사회교육학을 전공했어요. 시사 프로그램 많이 하다 보니 사회학, 정치학 등을 배웠던 게 도움이 많이 돼요. 방송 관련 학과를 나오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나오지 않아도 전공을 활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사학을 전공한 분들은 <역사저널 그날> 같은 방송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아요. 음악을 전공하고 클래식 잘 알면 <클래식FM> 채널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고요.”

방송과 뉴스는 정치, 문화, 사회, 인물 등 수많은 분야를 다룬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사람 사는 이야기이다. 이 때문에 이 일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호기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잘 듣는 게 중요하다.



호기심을 가지고 잘 듣는다면 대화를 어떻게 끌고 가야 하는지,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 수 있다.

🎙️ ——— “매일 신문을 읽고 저녁마다 뉴스를 챙겨 보면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좀 생기지 않을까요? 단순히 읽고 보고 끝내지 않고 친구들이랑 토론도 해 보고요. 이야기 나누다 보면 ‘왜 이 일이 일어났지?’라든지 ‘이 일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건 없을까?’ 이런 것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궁금해질 거예요. 아나운서라는 일은 그래야 궁극적으로 재미있고 보람 있거든요. 더듬이가 바깥으로 향해 있어야 해요.”

좋아하는 일을 계속하려면

아나운서는 보통의 직장인들과 다른 시간을 산다. 많은 방송에 따라 출퇴근이 정해진다. 송지원 아나운서는 오후 5시 라디오와 밤 9시 뉴스를 맡아 진행하기 때문에 출근은 오후 2시, 퇴근은 밤 10시에 한다. 5년째 고정된 일상이다.

🎙️ ——— “2시에 출근해서 신문을 살피고 라디오 제작진과 당일 방송 회의 및 다음 날 아이템 논의를 합니다.



열정을 — 만나다

그런 다음 원고를 숙지하면서 방송 준비를 하면 5시 라디오 시간이 돼요. 라디오를 마치면 분장실에서 헤어 메이크업을 하고 9시 뉴스를 준비하고요.”

저녁이 없는 대신 아침이 있는 삶이다. 원래도 아침형 인간이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해서 여가도 즐긴다.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하거나, 책을 읽고 영화를 보면서 좋아하는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힘을 키운다.

🎙️ ——— “저는 제 일을 잘하고 싶어서 평소에 많이 보고 듣는 편이에요. 책을 읽으면 어떤 사람이 특정한 말을 하거나 어떤 선택을 하는 배경을 이해하게 되잖아요. 이걸 삶에도 적용해 봐요. 지금 내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람의 말 뒤에 어떤 뜻이 숨어 있는지 상상력을 키우는 거죠.”

일이란 마냥 좋을 수는 없다는데, 힘든 건 없을까? 송지원 아나운서는 매일 생방송을 하다 보니 그에 따른 긴장감과 압박감을 가지고 산다는 게 조금 힘든 점이라고 한다. 그 외에는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행복함이 전부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주어진 일을 잘하고 싶다는 마음뿐이다.

🎙️ ——— “요즘 AI 앵커들도 많아서 ‘어디까지 AI가 아나운서의 영역을 대체할 것인가’ 이 부분은 아나운서들도 고민이에요. 하지만 아나운서를 꿈꾸는 친구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저는 꿈꿔도 좋은 직업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일에 관심이 있다면 이 일을 꿈꿔도 좋아요. 어떤 친구들이 불지는 모르겠지만 이 기사를 읽고 아나운서를 꿈꾸게 되거나 자신의 꿈에 힘을 얻는 친구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01

하루 종일 즐거운 체험과 함께하는 진해 여행

겨울방학의 끝자락.

아이들에게 더 없이 즐겁고 유익한 여행을
선물하는 방법. 자연 속에서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아이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고 싶다면 진해로 떠나보자.

진해목재문화체험장 · 진해해양공원 · 웅천도요지전시관

- 01 진해해양공원의 노을
- 02 목재체험중인 아이들
- 03 모두 목재로 만들어진 내부 시설

02



03



100년이 넘는 세월을 나라에서 유지하고 관리해
숲이 더 잘 보존된 진해드림파크 내
목재문화체험장은 자연과 친해질 수 있는
훌륭한 놀이터이다.

2009년 3월 개장 이후 목재문화종합박물관 역할을 해왔던
이곳은 2020년 야외놀이터와 바닥 분수, 모래놀이터 등을 설
치하는 등 어린이 체험 특화 공간으로 변화를 계속하고 있다.
목재문화체험장은 진해만 생태숲과 가까운 거리에 자리 잡고
있어 걸어가기로 마음을 먹는다면 가는 동안 연못도 지나고 벗
나무, 비자나무 등 숲 산책로도 만날 수 있다.

순수 목재로 지어진 종합전시장 2층 전시실에서는 나무의 기
원, 우리나라 목조 주택의 변천사, 우리 생활 속 목재의 쓰임
새 등 최초 나무의 생성 과정부터 도구, 우리 생활에 이용하
기까지 나무의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물을 관람할
수 있다. 특히 목재를 활용하여 생활공예품, 학습도구 등 다양
한 목제품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 목공예 프로그램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깔금 화장지 받침대, 하하호호 얼굴문패, 러브 포토갤러리 등 아이들을 위한 체험부터 각선미 원형스톨, 힐링 나무쟁반 세트 등 성인들을 위한 공방을 준비해 두고 있다. 매주 월요일 체험관은 쉬지만, 숲과 공원은 항상 열려 있다.

나무와 실컷 놀았다면 이젠 바다로 떠나보자.

매섭기는 하지만 청량함 속에 약간의 온기를 품은 겨울 바다가 그리울 때가 있다. 진해 앞바다의 작은 섬, 음지도에 만들어진 진해해양공원으로 향했다. 음지교를 통해 육지와 연결된다. 차량으로 음지교에 들어선다면 주차비를 내야 한다. 해양공원은 해양생물테마파크, 해전사전시관, 군함전시관 등 전시관 시설이 바닷가 주변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진해솔라타워와 어류생태학습관, 해양생물테마파크는 각각 이용 요금이다.

해양생물테마파크에 들어서면 조개를 형상화하여 원뿔 모양으로 만든 커다란 조형물이 먼저 시선을 끈다. 살아 있는 화석인 실러캔스를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 바닷속 디오라마, 극피동물과 연체동물 등 해양생물의 모습과 생태를 모형으로 전시해 놓았다.

아이들의 발길이 오래 머무는 곳은 해저탐험대. 잠수함에 올라 탐험할 수 있는데 미취학 아동은 보호자 1인 탑승 가능한 어린이 전용이다. 스크린과 조명, 움직임 등을 통해 실제 바닷속에 온 것 같은 체험이 가능하다. 여타 해양 관련 박물관과 다른 곳을 꼽으라 하면 군함전시관을 꼽을 수 있다. 1951년 한국전쟁에 6개월간 참전하고, 1978년부터 한국 해군에서 활약하다 2000년에 퇴역한 구축함인 강원함이 안전상의 문제로 철거되고, 지금은 30여 년간 서해 연안 경비작전, 제1·2차 연평해전에 참전했던 진해함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기관장실을 시작으로 화살표를 따라가면서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전투정보실, 함교조타실 등 실제 군함의 곳곳을 제한 없이 둘러볼 수 있다. 좁디좁은 군함 내부를 관람하다 보면 경건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04



05



- 04 진해독재문화체험장의 전경
- 05 해양생물테마파크 중앙 시설
- 06 해양생물테마파크 내부 전시
- 07 진해웅천도요지전시관 전경
- 08 진해웅천도요지 가마 내부 모습

전시관들은 저녁에 문을 닫지만, 야외공원은 늦은 밤까지 이용 가능하다. 일몰 후에 조명이 밝혀지는데, 조금 날이 풀리면 오후 늦게 방문해 전시관을 관람하고 야외공원에서 멋진 야경을 즐기는 것도 괜찮을 듯하다.

진해 땅에서도 굵이 굵이 깊숙한 곳에 자리한 웅천도요지전시관에서는 불과 흙이 만나 그릇이 되는 신비를 체험할 수 있다.

2011년 11월 개관한 웅천도요지전시관. 웅천도요지는 조선시대 전기에 분청사기와 백자를 제작했던 가마터로 2002년 발굴 조사 결과 총 6기의 가마터와 분청사기, 회청사기, 이도류 등이 출토됐다. 우선 전시관으로 들어가면 웅천도요지 출토품을 비롯한 80여 점의 유물과 조선시대 가마 모형을 만날 수 있다. 흙과 인간의 만남, 일본으로 전해진 조선의 도자 문화, 웅천가마터와 자기 등에 대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해 놓았다. 영상관에서 5분 남짓 설명되는 화면을 보면 살짝 어려울 것 같은 그릇 만드는 과정이 쉽게 이해될 듯하다.

전시관을 나오면 실연장, 건조장, 작업장, 전통가마 총 4개 동으로 이루어진 도자기 체험공방을 만날 수 있다. 직접 도자기를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공방은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 길을 따라 수십 개의 계단을 오르면 경남도기념물 제160호인 웅천도요지 가마터가 나온다. 조선 전기 분청사기와 백자를 제작했던 가마터인데 총 6기의 가마 자리가 확인됐지만, 과거 도굴과 교란으로 많이 훼손되어 그 구조를 명확히 알 수 없다. 공개된 4호 가마는 바닥면의 잔존 상태가 양호해 당시 가마의 구조를 잘 살펴볼 수 있게 돼 있다. ‘불과 흙이 만나 그릇이 되는 신비’를 체험하고, 도요지전시관에 오르면 전망도 좋다. 진해 두동마을이 한눈에 보이고 햇빛을 받은 마을 저수지가 반짝인다.



07

08



진해드림파크 목재문화체험장

- ①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천자로 507
- ② 운영 동절기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 ③ 문의 055-548-2687
- ④ 누리집 <https://jhdreampark.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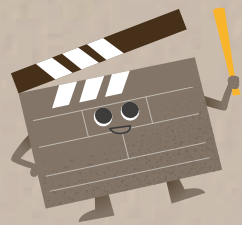
진해해양공원

- ① 주소 경남 창원시 진해구 명동로 62
- ② 운영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매주 월요일 휴무)
- ③ 문의 055-712-0425
- ④ 누리집 https://www.cwsisul.or.kr/_jhmmapark/

진해웅천도요지전시관

- ① 주소 창원시 진해구 두동도로 198
- ② 운영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도자기 체험강좌(4월~11월, 6세 이상, 체험비 1만 원)
차문화 체험강좌(4월~12월, 매주 토요일, 체험비 무료)
- ③ 문의 055-225-6859

우리를 꿈꾸게 만드는 영화



어른들은 말합니다. 꿈은 크게 가지는 것이 좋다고요. 꿈꾸는 대로,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여러분의 가능성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큰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하루하루 작은 움직임을 성실히 쌓아가야 한다는 걸 잊지마세요. 부지런히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겨울방학, 여러분을 꿈꾸게 만드는 영화 세 편을 추천합니다.

MOVIE 01

리바운드

“앞으로 농구를 하면서 먹고살건 다른 걸 하면서 먹고살건 겁먹지 말고 달려들어서 다시 잡아내라”

개봉 2023.04.05. 감독 장항준 등급 12세 관람가 장르 드라마 국가 대한민국 상영 시간 122분

농구선수 출신 공익근무요원 양현은 해체 위기에 놓인 부산중 앙고 농구부 신입 코치로 발탁된다. 하지만 전국대회에서의 첫 경기 상대는 최강자 용산고. 팀워크가 무너진 중앙고는 몰수패 라는 치욕의 결과를 낳고 학교는 농구부 해체까지 논의하지만 양현은 MVP까지 올랐던 고교 시절을 떠올리며 다시 선수들을 모은다. 주목받던 천재 선수였지만 슬럼프에 빠진 가드 기범, 부상으로 꿈을 접은 올라운드 스몰 포워드 규혁, 점프력만 좋은 축구선수 출신의 괴력 센터 순규, 길거리 농구만 해온 파워 포워드 강호, 농구 경력 7년 차지만 만년 벤치 식스맨 재운, 농구 열정 만 만렙인 자칭 마이클 조던 진욱까지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최 약체 팀이었지만 신입 코치와 6명의 선수가 2012년 전국고교 농구대회에서 써 내려간 8일간의 기적 모두가 불가능이라 말할 때, 우리는 '리바운드'라는 또 다른 기회를 잡는다.



MOVIE 02

소중한 날의 꿈

“1등은 기분 좋은 거다. 그렇지만 내가 만날 꿈들이 등수가 매겨지는 일이 아니었으면 한다.”

개봉 2011.06.23. 감독 안재훈, 한혜진 등급 전체 관람가 장르 애니메이션 국가 대한민국 상영 시간 98분

이량은 제주에서 처음으로 상대에게 추월당하자 지지 않으려고 일부러 넘어진다. 그 후, 이량은 육상부 선생님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지는 것이 두려워 달리기를 하지 않게 된다. 이량은 레코드 가게에서 전학생 수민을 만나 친구가 된다. 항상 자신감 넘치는 수민을 보며 스스로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한다. 어느 날 학교에서 철수가 비행실험을 하다 추락해 다치는 소동이 일어나고 이량은 철수에게 호기심을 갖게 된다. 그러던 중 읍내에 고장 난 라디오 수리를 맡기러 간 이량은 그 전파사에서 삼촌 대신 수리를 하고 있는 철수를 만난다. 두 사람은 비행실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가까워진다. 철수는 비행과 우주탐사에 대한 꿈을 이야기하고 이량은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철수를 보며 설렌다. 한편, 꿈과 재능이 넘치는 수민과 철수를 만나며 이량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더욱 고민하게 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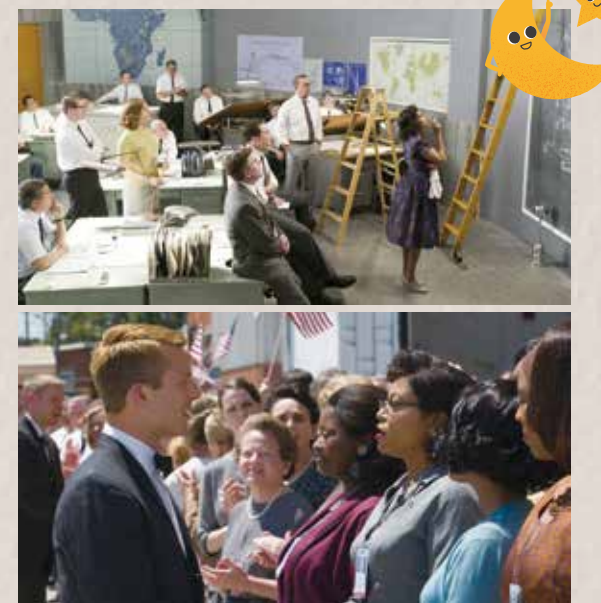
MOVIE 03

히든 피겨스

“누구의 도약이든 우리 모두의 도약이야.”

개봉 2017.03.23. 감독 데오도르 멜피 등급 12세 관람가 장르 드라마 국가 미국 상영 시간 127분

천부적인 수학 능력의 흑인 여성 캐서린 존슨, 미국 항공우주국 (NASA) 흑인 여성들의 리더이자 프로그래머 도로시 본 흑인 여성 최초의 NASA 엔지니어를 꿈꾸는 메리 잭슨. 미국과 러시아의 치열한 우주 개발 경쟁으로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던 시절, 천부적인 두뇌와 재능을 가진 그녀들이 NASA 최초의 우주궤도 비행 프로젝트에 선발된다. 하지만, 흑인이라는 이유로 800m 떨어진 유색인종 전용 화장실을 사용해야 하고, 여자는 이유로 중요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으며, 공용 커피포트조차 용납되지 않는 따가운 시선에 점점 지쳐간다. 한편, 우주궤도 비행 프로젝트는 난항을 겪게 되고, 해결방법은 오직 하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수학 공식을 찾아내는 것뿐인데... 천재성에는 인종이 없고, 강인함에는 남녀가 없으며, 용기에는 한계가 없다! 세계를 놀라게 한 그녀들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2

2024
이달의 경남교육
행사를 소개합니다

- 가야산독서당 정글북
- 김해도서관
- 김해지혜의바다도서관
- 마산도서관
- 마산지혜의바다도서관
- 유아교육원 김해체험분원
- 유아교육원 진주체험분원
- 창원도서관

일	월	화	수
			가독과 함께하는 모두가 함께 즐기는 듀엣 팝페라 공연 duet popera 일시 2월 4, 2, 3(목) 16:00 정글북 별당 장소 정글북 아뜰라 누리나
4 15:00~17:00 / 시청각실(3층) / 영화가 있는 일요 극장 <가버나움>	5	6	
11 15:00~17:00 / 시청각실(3층) / 영화가 있는 일요 극장 <슬럼독 밀리어네어>	12 대체 휴일	13	14 15:00~17:00 / 시청각실(3층) / 5060 수요 영화 극장 <터미널> 16:00 / 1층 나눔방 / 사서쌤과 함께 그림책 탐구생활
18 15:00~17:00 / 시청각실(3층) / 영화가 있는 일요 극장 <슬럼독 밀리어네어>	19	20	21
25	26	27	28 15:00~17:00 / 시청각실(3층) / 5060 수요 영화 극장 <윤희에게> 11:00 / 2층 지혜마루 / 수요음악회 <최은아 필렛> 15:00 / 책담 1층 해오름 / 영화 상영 <극장판 쟁구는 못말려 20기>

목	금	토
1 10:00~17:00 / 디지털자료실(3층) / 김씨네 영화감상실 (~2.29.까지)	2 10:30~12:30 / 3층 갤러리 푸르미르 / 2월 김민채 작가 도슨트 투어	3 16:00~17:00 / 정글북 별당 / 듀엣 팝페라 공연 10:00~12:00 / 유아자료실 / 책이랑 놀이랑 <나의 꿈상자 만들기> 14:00 / 2층 지혜마루 / 퓨전 국악 공연 15:00 / 1층 나눔방 / 동화랑 놀자 <동화 함께 읽기> 15:00~15:40 / 1층 놀이꽃밭 / 인형극 <고미의 특별한 여행> 10:00 / 책담 2층 책벗 / 체험 <책담 하루 수업> 11:00, 15:00 / 책담 1층 누리홀 / 공연 <댄싱 히어로즈 (누리봇 댄스공연)> 14:00 / 책담 2층 책벗 / 체험 <토요책동산> 16:00 / 책담 1층 누리홀 / 체험 <샌드 크래프트>
8	9	10 설날
15	16 10:00~12:00 / 1층 힐링방 / 원데이클래스 <봄을 알리는 그림 그리기>	17 16:00~17:00 / 정글북 별당 / 퓨전국악 <토끼의 생일잔치> 14:00~15:00 / 시청각실 / 아이랑 동화극장 <꼬꼬닭이 왜 이래> 11:00 / 1층 별빛마루 / 별빛 인형극 <손톱 먹은 쥐> 14:00 / 2층 지혜마루 / 토토로 어서옵SHOW <토끼야 용궁가자> 15:00~15:40 / 1층 세상을 봄 / 클래식 연주 <이야기가 있는 음악회> 15:00~15:40 / 2층 지혜마루 / 힐링공연 <금관악기에 빠지다> 11:00, 15:00 / 책담 1층 누리홀 / 공연 <댄싱 히어로즈 (누리봇 댄스공연)> 15:00~15:40 / 책담 1층 꿈뜨락 / 공연 <One Day More(굿데이 중창단)> 16:00 / 책담 1층 누리홀 / 체험 <샌드 크래프트>
22	23 10:00~12:00 / 1층 힐링방 / 원데이클래스 <봄을 알리는 그림 그리기>	24 16:00~17:00 / 정글북 별당 / 상상력 자극 <마임과 함께하는 매직쇼> 10:30 / 1층 별빛마루 / 통통 그림책 데이트 <김용웅 작가와의 만남> 14:00 / 2층 지혜마루 / 인문학으로 ON나 <최성용 작가 강연> 15:00 / 1층 나눔방 / 동화랑 놀자 <동화 함께 읽기> 14:00~16:00 / 3층 무학전당 / 주제로 만나는 시간[2월 신화] <김헌 교수 강연> 10:00 / 책담 1층 꿈뜨락 / 공연 <동화 인형극> 11:00, 15:00 / 책담 1층 누리홀 / 공연 <댄싱 히어로즈 (누리봇 댄스공연)> 16:00 / 책담 1층 누리홀 / 체험 <샌드 크래프트>
29	30	31



• 프로그램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면의 한계로 일부 행사만 소개하였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각 기관의 누리집이나 QR코드를 통해 확인하세요.



우리 학교 명장면! <거창 고제초등학교>

학교 선생님과 학생들이 직접 자랑하는 우리 학교 이야기.

오늘은 거창 고제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빛나는 추억으로 남은 장면들을 소개합니다.

✓ 우리 학교 자랑거리 하나!

체험이 아닌 지속적인 환경교육, 친환경 벼농사 <반디두레 프로젝트>



☎ 못줄에 맞추어 모심기



☎ 맛있는 새참 먹기



☎ 벼단 묶기

✓ 우리 학교 자랑거리 둘!

마을에서 배우고 일하며 마을을 위해 나누는 <사회적 경제학습>



☎ 마을강사님께 사과농사법 배우기



☎ 사과 수확하기



☎ 사과 박스에 포장하기

✓ 우리 학교 자랑거리 셋! 더 큰 꿈을 위해 <무지개 승마단 운영>



☎ 말타기



☎ 고제초등학교 <무지개 승마단> 친구들



☎ 말과 친해지고 있어요



☎ 승마 체험 후 말과 교감하기

✓ 우리 학교 자랑거리 넷! 사계절을 즐기고 놀면서 배운다 <놀멍쉬멍 체험>



☎ 봄 - 교육공동체가 하나대되는 체육대회



☎ 여름 - 서핑교육



☎ 가을 - 연극공연



☎ 겨울 - 스키캠프



‘한의사 살빼남과 알아보는
건강한 10대 다이어트’
영상으로 만나보고 싶다면?

살빼남 경력 및 활동

-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졸업
- 한방비만학회 정회원
- 대한두피탈모학회 부회장(전)
- 한방피부과학회 정회원
- 한국의사학회 정회원
- 보건복지부 출판 동의보감 영역 및 편집
- KBS 의학 관련 프로그램 번역(생로병사의 비밀, 추적60분, KBS스페셜 등)

한의사 살빼남과 알아보는 건강한 10대 다이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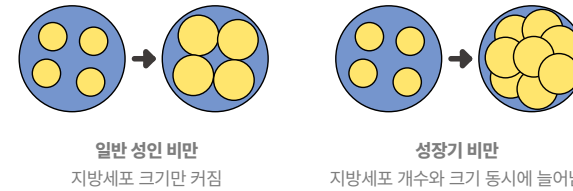
청소년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건강 정보를 알려주는 우리 아이 튼튼 정보. 오늘은 겨울방학 다이어트를 결심한 청소년들을 위해 건강하게 다이어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빠르게 체중을 감량하고 싶다는 마음에 무작정 굶는 다이어트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그럴 경우 여러분의 건강을 크게 해칠 위험이 있습니다. **한의사 살빼남과 함께 내 몸을 지키며 다이어트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함께 실천해 봅시다.**

Q 왜 다이어트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임상 14년 차 한의사이며 다이어트 채널인 <살빼남-다이어트 한의사>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다이어트 방법을 알려드리기에 앞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이 왜 다이어트를 해야 될까요? “난 딱히 살찌도 상관없는데, 대학 가서 다이어트하면 그만인데?”라고 할 수도 있지만 성장기에 적절한 체중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Q 성장기에 적절한 체중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

어릴 때 비만이 되면 성인이 돼서도 비만이 되기 쉽다.



미국 시나이 의대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체지방 세포에 방이 100칸이 있으면 이 100칸 안에 지방이 쌓이고요. 자꾸 쌓이다 보면 그 100칸의 사이즈가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 체지방 세포 방 개수는 평생 동안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장기에 살이 찌면 어떻게 될까요? 체지방 세포 방 개수가 100개였던 게 200개로 늘어나는 방식으로 개수가 자꾸 늘어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200칸이 된 지방세포는 자신 안에 자꾸 지방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꾸 음식을 먹게 되겠죠? 즉 어릴 때 살이 찌면 이 체지방 세포 크기뿐만 아니라 방 개수도 늘어나서 후에도 엄청 불리해진다는 것입니다.

키 성장과 연관이 있다

건국대 의대의 2017년도 연구를 보면 비만인 학생들이 정상인 학생들보다 키가 더 크다고 하죠. 일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성장기에 비만이 되면 호르몬에 문제가 생겨 성조숙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조숙증이란 2차 성징이 빨리 와버리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비만인 친구들이 키가 큰 것처럼 보이지만 2차 성징이 빨리 오는 만큼 성장판이 일찍 닫힙니다.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성장기에도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Q 굶는 다이어트를 하면 안 되는 이유

“다이어트는 굶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굶는 다이어트는 단기간에 빠른 감량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여러모로 문제가 많습니다. 먼저 머리카락이 우수수 빠지는 모발 다이어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빠진 모발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굶는 다이어트는 거식증, 신체 이형증 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의 다이어트는 어른들과 달라야 합니다. 성장기에 있는 여러분은 계속 키가 크고 있기 때문에 체중을 유지하기만 해도 점점 더 날씬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어른과 속도가 절대 같을 수는 없고요. 천천히 느리게 빼더라도 좋습니다. 오히려 다이어트를 너무 무리하게 하거나 성급하게 해서 건강이나 성장에 해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다이어트는 항상 여러분의 신체 성장과 어른이 돼서 건강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에 최우선을 두고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 절대 잊지 마세요!

Q 건강한 10대 다이어트 방법



**하루 7~9시간의
충분한 수면**

우리 몸에는 살을 빠지게 해주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런데 잠을 안 자면 이 렙틴에 저항성이 생겨버립니다. 따라서 충분한 수면을 위해 일찍 자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식사
꼭 챙겨 먹기**

“살을 빼야 되는데 아침을 안 먹던 사람이 먹으면 오히려 더 찌지 않을까?” 이런 야식증후군 때문에 그런데요. 야식증후군이란 저녁이나 밤에 야식이 당기는 증상, 수면의 질이 떨어져 계속 피곤한 증상, 소화 기능 저하, 아침에 음식을 먹으면 더부룩함을 느끼는 증상을 뜻합니다. 따라서 아침을 먹어줘야 야식증후군도 나아지게 됩니다. 처음부터 밥을 먹기 힘들다면 간단한 죽이나 본인이 먹을 수 있는 것을 자꾸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끼니 제시간에 먹고
간식, 야식 끊기**

간헐적 단식을 이용한 방법인데요. 미국 존스홉킨스 의대의 연구를 보면 비만이 걸릴 확률도 줄어든 뿐만 아니라 복부 지방도 줄어 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걸 참고해서 하루 세 끼를 제시간에만 드시고 나머지 시간에는 필요 없는 음식 섭취를 금하셔서 우리 몸에 인슐린 분비 조절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설탕, 단것을 줄이고
양질의 영양분 섭취**

당질은 혈당을 올리고 혈당이 올라가면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이는 지방 합성을 활성화하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초콜릿 등 단 음식은 최대한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채소, 해산물, 과일 등 여러분 몸에 건강한 영양소를 보충해 줄 수 있는 식품을 많이 섭취해 주세요.

우리같은마음

1화

웹툰작가 앵무

“인간은 누군가를 따돌려야만
직성이 풀리는 걸까?”



2024
한 발 더
다가서는

경남교육
5대 약속

새로운 경남교육을 향한 끊임없는 도전!

학생들이 자립과 공존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미래 역량을 기르도록,
모든 정책을 학교를 중심으로 세우고 펼치도록,
학교 교육력 강화를 통한 자립과 공존의
미래교육을 만나봅시다.

경남교육
약속 하나

아이들은 저마다 다른 속도로 다른 꿈을 꾸며 자랍니다.
경남교육청은 학생이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꿈꾸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학생 개별 맞춤형 수업**에 한 발 더 다가섭니다.

미래형 교육과정으로 학생의 자기주도성을 기릅니다

- **아이톡톡-아이북을 활용한 미래형 수업**을 실천합니다.
빅데이터·인공지능(AI) 플랫폼 <아이톡톡>은 교육 서비스 27종을 중심으로 교실수업을 지원합니다.
학생의 개별성을 찾아주는 배움 중심의 미래형 수업은 더욱 확산됩니다.
- **폴리오북을 활용한 학습분석과 피드백으로 학생의 학습성장**을 촉진합니다.
아이톡톡-아이북으로 학습한 내용을 아이톡톡 종합 학습분석시스템 '톡톡학습분석'을 활용하여
교과학습, 사회정서학습, 학습성향 등을 다면적·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이런 정책도 함께 합니다.

유·초 연계 이음학기 운영, 학생의 삶을 설계하는 진로연계 교육과정 지원, 공동교육과정 및 경남온라인학교 운영

학생의 꿈과 미래를 담은 저마다의 도전을 지원합니다

- **경남형 진로교육 지원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경남진로교육센터를 중심으로 학교급별 맞춤형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경남진로교육원(가칭)설립으로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 지원을 내실화합니다.
- **경남형 직업교육 혁신지구**를 운영합니다.
경남형 직업교육 혁신지구(거제-미래조선, 거창-디지털승강기, 밀양-나노반도체)를 기반으로
지자체·산업체 등과 협업한 맞춤형 취업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런 정책도 함께 합니다.

유아체험교육원 설립, 미래형 학습환경 온오프라인 연계 교육 운영, 지역연계 미래교육지원센터(4곳) 운영

상상을 현실로 미래교육이 펼쳐집니다

- **미래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미래교육원은 수준별 미래교실 수업 34개를 개발하여 모든 학생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미래를 여는 융합교육**을 강화합니다.
학생코딩인증제, AI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 창의융합형 정보교육실 구축으로 디지털 교육의 격차를 해소하고,
19개 발명교육센터 운영 등으로 발명·융합교육을 강화합니다.

이런 정책도 함께 합니다.

개발 3년 차 아이톡톡 고도화·활성화, 데이터 기반 학생 맞춤 성장형 수업 지원, 아이북 통합관리지원센터 내실화

경남교육
약속 둘

평등하게 배우고 평등하게 꿈꾸는 교육은 모든 학생이 누려야 할
소중한 권리입니다. 학교 안에서 한 아이도 소외되지 않도록
모든 학생의 교육복지에 한 발 더 다가섭니다.

모든 학생이 배움의 힘을 키울 수 있도록 공정하게 지원합니다

- **권역별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3개 권역(서부, 남부, 동부)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실시간 현장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전문기관과 연계한 심층 지원을 강화합니다.
- **경남형 돌봄시스템 구축으로 돌봄공백**을 해소합니다.
경남형 늘봄학교 추진으로 초등 1학년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신입생 적정 프로그램과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런 정책도 함께 합니다.

한샘집중학년제·기초학력 책임교육 지원단 운영, 거점통합돌봄센터(명서, 상남, 김해) 운영, 미래 수요를 반영한 방과후학교 운영

모든 학생이 다양한 모습으로 성장하도록 책임 집니다

- **김해 다문화교육 특구**를 운영합니다.
다문화학생들의 통합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다가치 통합성장 프로그램(언어, 학습, 정서·관계, 생활)을
지역의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운영합니다.
- **학교 내 대안 교실(꿈키움교실)**을 운영합니다.
학교 내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교 부적응 및 학업중단 위기를 예방하고
학생의 개별성을 존중하는 맞춤형 교육을 강화합니다.

이런 정책도 함께 합니다.

문화교육지원단, 다문화협력 강사 운영,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 경남다양성교육지원센터 구축

교육의 공공성이 모든 학생에게 성장의 가능성이 됩니다

- **AI 기반 에듀테크 특수교육 환경**을 조성합니다.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확대와 교육환경 개선으로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체제를 강화합니다.
- **지역기반 교육복지안전망을 운영**합니다.
교육취약학생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학생을 발굴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해 건강한 성장을 통합적으로 지원합니다.

이런 정책도 함께 합니다.

개발 3년 차 아이톡톡 고도화·활성화, 데이터 기반 학생 맞춤 성장형 수업 지원, 아이북 통합관리지원센터 내실화



언제나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학생이 걷는 길, 학생이 먹는 음식, 학생이 머무는 공간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는 노력.
경남교육청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에 한 발 더 다가섭니다.

학교 교육환경이 더 건강하고 안전해집니다

- **보행 교통안전지도 프로그램 ‘아이로 지킴이’를 운영합니다.**
교통안전지도 봉사자가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교를 도우면서 올바른 보행 습관 교육을 병행하는 아이로(路) 지킴이를 확대합니다.
- **학교급식연구소 ‘맛봄’을 개관·운영 합니다.**
학교급식의 품질향상과 학교급식 관계자의 전문성 함양, 학교급식 정책연구, 학생 및 학교급식 관계자 교육, 식품안전성 검사 등을 실시하는 학교급식 연구·교육기관을 개관합니다.

이런 정책도 함께 합니다.

통학안전 3종 활용 강화, 동부권 학생안전체험원, 해양안전체험관 설립 추진, 모든 유치원 ‘아이좋아 안심유치원’ 운영

공감·배려의 실천이 평화롭고 어울림이 있는 학교를 만듭니다

- **경남형 학생수련활동 ‘산들산들 이음 수련·체험교육’을 운영합니다.**
경남의 학교와 자연과 지역을 연계하여 학생의 배움과 자립, 공존, 실천으로 이어지는 생태전환 중심의 종합적 수련·체험교육을 실시합니다.
- **학교폭력 제로(zero)센터를 운영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조사부터 피해학생 심리 상담과 치료, 피해·가해 학생 관계회복, 피해학생 법률 서비스까지 통합 지원합니다.(18개 교육지원청 설치)

이런 정책도 함께 합니다.

인권보호 통합 지원, 학교폭력 책임규약 및 사회·정서 프로그램 운영, 학교응급심리지원 매뉴얼 제작·배포

책임과 참여가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교육공동체의 힘이 됩니다

- **학생 실천 중심의 자치활동을 활성화합니다.**
학생의회 운영, 학생자치회실 구축 지원, 학생의 사회 참여교육 확대를 지원합니다.
- **학교 교육공동체실 구축을 지원합니다.**
학부모, 학생, 교직원인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서로 협력하고, 의견을 수렴하며 소통하기 위한 학교공동체 활용 공간 구축을 지원합니다.

이런 정책도 함께 합니다.

경남 학교 퍼실리테이터(촉진자) 자격 과정 운영, 지역 학부모 네트워크 구축 운영, 단위학교 학생생활제규정 표준안 제공



기후위기 대응교육은 미래사회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을 위한 어른들의 소중한 책임입니다.
학교 담장 너머 온 마을이 함께하는 **생태전환교육**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지킵니다.

마을과 연계하여 모든 곳이 배움터로 확장해집니다

- **행복나눔학교(19개), 행복학교(127개)를 운영합니다.**
행복학교의 철학과 문화를 확산하는 경남형 미래학교 실현으로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배움과 협력이 있는 학교를 실천합니다.
- **광역 통학구역 내 통학 편의 지원을 강화합니다.**
교육지원청 통학버스 통합 관리 운영으로 통학 편의를 지원하고 통학버스 안전을 강화합니다.

이런 정책도 함께 합니다.

작은학교 공간 재구조화 지원, 유·초·중등 연계교육과정 운영,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3개 학교)

학교와 지역이 상생하는 교육생태계를 만듭니다

- **지역 교육 협력 강화를 통한 미래교육지구를 운영합니다.**
행복교육지구 7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더욱 강화합니다.
- **마을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마을 배움터와 마을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지역과 함께 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지원합니다.

이런 정책도 함께 합니다.

공공도서관 통합자료관 시스템 고도화, 학력인정 문해교육 기관(초·중·고) 설치·운영, 청소년 자치 배움터 운영

경남의 **지역성**을 바탕으로 생태전환교육을 실천합니다

- **환경교육특구를 확대 운영합니다.**
환경교육특구를 16개 교육지원청으로 늘려 마을과 함께하는 환경 교육의 선도모델을 구축합니다.
- **학부모 그린멘토, 학생 기후천사단 활동을 확대합니다.**
가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학교 기후환경 교육을 실천하는 문화를 확산합니다.

이런 정책도 함께 합니다.

창원 교육단지 내 생태학습장(생태숲) 조성, 에너지·플라스틱 줄이기 운동 전개, 친환경 에너지 전환 기반 구축



학교가 행복해야 학생들도 행복합니다.
교육공동체가 함께 꿈꾸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행복한 일터 조성에 한 발 더 다가섭니다

교육공동체가 협업하여 더 효율적이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듭니다

- **학교 중심 재정 지원을 위한 ‘통합사업운영비’를 신설합니다.**
목적사업비를 감축하고 통합사업비를 신설하여 학교 중심의 재정 자율성을 확대하고 학교 행정 업무를 줄여나갑니다.
- **소극행정 예방 및 적극행정 문화 확산**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무원의 적극 행정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런 정책도 함께 합니다.

자율형 종합감사 내실화, 적극적 업무 추진을 위한 사전 컨설팅 강화, 도민이 참여하는 청렴옴부즈맨 운영

교육본질에 더 집중하도록 학교 지원의 전문성을 높입니다

- **교육활동 보호와 전념을 위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교육활동 보호 담당관을 신설하여 특이 민원과 교권 보호 대응 체계를 구축합니다.
- **학교통합지원포털 ‘온학교e지원’ 운영을 활성화 합니다.**
학교업무 도움자료 통합 관리·지원으로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운영을 고도화합니다.

이런 정책도 함께 합니다.

(학교 안)교무행정팀 효율적 운영, 학교 대상 공모사업 감축 및 일괄 선정,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안전망 운영

소통, 쉼과 휴식으로 행복한 일터를 만듭니다

- **치유와 쉼이 있는 힐링을 지원합니다.**
교원 치유 연수, 미술훈교직원휴양원 운영으로 지친 심신의 재충전 및 건강 회복을 지원합니다.
- **교육행정 민원서비스를 강화합니다.**
경남교육콜센터 운영 등 맞춤형 민원서비스(온·오프라인) 제공으로 민원 만족도를 높입니다.

이런 정책도 함께 합니다.

경남교육 홍보사업 강화(경남교육뉴스, 아이좋아 소식지, 경남교육 SNS), 경상남도교육청 기록원 설립 추진

2028 대입제도 개편 확정안 안내

중 3학생부터
적용됩니다

올해 중학생부터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많은 변화가 있을 텐데요.
중 3학생이 고교 1학년이 되는 2025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실시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진로와 적성을 바탕으로 한
교과 선택(일반·진로·융합)의 다양성이 확대되고 이러한
교과 선택 확대를 기반으로 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도 적용됩니다.
이번 호에서는 고교학점제 전면 실시에 따른 새로운 대입제도인
2028 대입제도 개편 확정안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2028학년도 수능 개편 확정안(요약)

영역	현행(~2027수능)	개편안(2028수능~)
국어	공통+2과목 중 택 1 공통 : 독서, 문학 선택 : 화법과작문, 언어와매체	공통 : 화법과언어, 독서와작문, 문학
수학	공통+3과목 중 택 1 공통 : 수학, 수학 선택 : 확률과통계, 미적분, 기하	공통 : 대수,미적분, 확률과통계
영어	공통(영어, 영어II)	공통(영어, 영어III)
한국사	공통(한국사)	공통(한국사)
탐구	17과목 중 최대 택2 사회(9과목) :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경제,정치와법, 사회·문화, 생활과윤리, 윤리와사상 과학(8과목) : 물리학I, 화학, 생명과학I, 지구과학I, 물리학II, 화학II, 생명과학II, 지구과학II	사회 : 공통(통합사회) 과학 : 공통(통합과학)
	1과목(5과목 중 최대 택1) 2과목(공통+1과목) 공통 : 성공적인직업생활 선택 : 농업기초기술, 공업일반, 상업경제, 수산·해운산업기초, 인간발달	직업 : 공통 (성공적인 직업생활)
제2 외국어 한문	9과목 중 최대 택1 제2외국어·한문 : 9과목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한문	9과목 중 최대 택1 제2외국어·한문 : 9과목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한문

* 음영표기는 절대평가가 적용 영역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통합형·융합형 수능 과목 체계와 고교 내신 개편입니다.

① 통합형·융합형 수능 과목 체계

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 직업탐구 영역은 선택과목제를 폐지하며, 특히, 사탐·과탐 영역은 2022 개정 교육과정 교과목인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출제하고 응시자 모두 동일하게 사회, 과학 2개 모두 응시합니다. 단, 대입전형 활용 등을 고려해 시험 시간과 점수는 분리합니다. 시안에서 논란이 된 심화수학(미적분2·기하)은 수능에 미포함하고 그 외 영역, 평가 및 성적 제공, EBS 연계방식 등은 현행 유지합니다.

② 고교 내신체제 개편

기존 내신 9등급제는 5등급제(1등급(10%), 2등급(24%, 누적34%), 3등급(32%, 누적66%), 4등급(24%, 누적90%), 5등급(10%, 누적100%)로 개편하며, 과목 평가결과를 절대평가(A~E)와 상대평가(1~5등급)를 함께 기재합니다. 체육·예술·교양 교과(군), 과학탐구실험 과목은 절대평가 성취도만 기재합니다. 사회·과학 교과의 융합선택과목 중 9과목(여형지리,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 세계, 사회문제 탐구, 금융과 경제생활, 윤리문제 탐구, 기후변화와 지속 가능한 세계, 과학의 역사와 문화, 기후변화와 환경생태, 융합과학 탐구)은 상대평가

석차등급을 미기재합니다. 융합학습의 대표 교과인 사회·과학 융합선택 활성화를 통해 교과 융합 및 실생활과 연계한 탐구·문제해결 중심으로 수업 내실화에 집중합니다.

2028 대입제도 개편이 적용되는 현재 중 3학생들은 혼란스러움이 가중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개편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학교 생활인 수업 충실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진학 전 중학교 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대입제도 개편에 따라 대학이 대입에서 어떤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할 것인가는 2026년 4월에 발표할 <2026학년도 대입전형계획>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은 이미 고교학점제에 따른 대입전형을 대비하여 기존의 대입에 적용해 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현재의 대입제도에 비해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학업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새로운 대입제도를 준비하는 첫걸음이라 생각하며, 고교 진학 후 대입 제도 변화에 따라 고등학교가 안내하는 내용에 충실하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진학과 대입의 모든 것, 경남대입정보센터

https://jinhak.gne.go.kr

055-210-5122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남대입정보센터**

개편안에 따른 과목별 성적 산출 및 대학 제공 방식(확정)

보통교과		
절대평가	원점수	O
	성취도	A·B·C·D·E
상대평가	석차등급	5등급
통계정보	성취도별 분포비율	O
	과목평균	O
	수강자수	O

사회·과학 융합선택		
절대평가	원점수	O
	성취도	A·B·C·D·E
상대평가	석차등급	-
통계정보	성취도별 분포비율	O
	과목평균	O
	수강자수	O

체육·예술 / 과학탐구실험		
절대평가	원점수	-
	성취도	A·B·C
상대평가	석차등급	-
통계정보	성취도별 분포비율	-
	과목평균	-
	수강자수	-

교양		
절대평가	원점수	-
	성취도	P
상대평가	석차등급	-
통계정보	성취도별 분포비율	-
	과목평균	-
	수강자수	-

전문교과		
절대평가	원점수	O
	성취도	A·B·C·D·E
상대평가	석차등급	5등급
통계정보	성취도별 분포비율	O
	과목평균	O
	수강자수	O

경남교육 NEWS



경상남도교육청, 도시 지역 중학생 통학 버스 지원

통학 거리 5km, 통학 시간 30분 이상의 원거리 학생 불편 해소

경상남도교육청은 원거리를 통학하는 도시 지역 중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통학 버스를 증편 운영한다.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한 중학교 광역학구제로 원거리 통학하는 중학생이 증가하면서 등하교에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경남교육청은 지난해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를 제정해 올해부터 통학 편의를 지원한다. 통학 거리 5km 이상, 대중교통 30분 이상 원거리를 통학하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 학부모의 희망을 받는다. 버스 운영 최소 인원은 13명이다.

경남교육청은 통학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예산 50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통학 차량을 140여 대 더 늘려 1,030여 대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종부 학교지원과장은 “통학 편의 지원을 확대하여 학부모의 자녀 통학에 대한 부담을 덜고, 학생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상남도교육청, 맞춤형 기초학력 지원 확대

심층 진단 학생 2,000명, 전담 강사 500명으로 늘려

경상남도교육청은 2023학년도 기초학력 지원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책임 교육을 실현하고자 2024학년도 기초학력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경남교육청은 경계선 지능 학생과 읽기 곤란 학생을 조기 판별하고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한다. 올해 주요 사업은 △기초학력 심층 진단 확대 및 학부모 상담 강화 △기초학력 전담 강사 개별 수업 지원 확대 △책임교육 학년 지원 △경계선 지능 학생과 읽기 곤란 학생 개별 지원 프로그램 강화 등으로 더 촘촘한 대책을 마련한다.

박영선 초등교육과장은 “학생들의 출발점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에 맞는 지원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고 지원이 필요한 모든 학생을 위한 수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라면서 “경남교육청은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는 책임 교육을 실현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경남교육 NEWS



올해 경남교육청의 모든 정책은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돌봄의 모델 주도적 개발” ‘자립과 공존의 미래교육 실현’의지 밝혀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이 11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진행한 2024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경남교육청의 모든 정책은 학교를 중심으로 세우고 펼쳐지도록 하겠다. 2024년 경남교육은 현장 속에서, 교육공동체와 함께, 학교 교육력 강화를 통해 자립과 공존의 미래교육을 펼쳐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교육활동 보호 △미래교육 강화 △실천 중심의 생태전환교육 △돌봄의 새로운 모델 구축 등을 제시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공공재인 교육을 약육강식의 시장 논리로 접근하지 않고 교육의 공공성을 더 높이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라면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경남교육 10년의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립과 공존의 경남교육은 선한 영향력을 가진 도민과 학부모님의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흐트러지지 않는 마음으로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경남교육을 위해 정성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행복학교 10년, 경남교육에 스며들다

2024년 행복학교 선정 교원 120명 직무 연수, 현판 수여식 개최

2024년 신규 지정 행복학교 교직원 120명을 대상으로 1월 16일~18일 금호통영마리나리조트에서 직무 연수와 신규 및 재지정 행복학교 현판 수여식을 열었다. 2024년은 행복학교 10년을 맞는 해이다. 행복학교는 교육 공동체가 배움과 협력의 토대 위에 성찰, 소통, 공감을 지향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경남형 미래 학교를 말한다. 그동안 행복학교는 경남 혁신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공교육 혁신 학교 모델 역할을 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지속 가능한 학교 체제를 구현하고자 행복학교 3.0을 바탕으로 경남형 미래 학교의 모습을 만들어 가고 있다. 현판 수여식에 참석한 박종훈 교육감은 “경남 혁신교육 10년의 실체가 행복학교이다. 행복학교와 함께한 10년 동안 행복학교를 바탕으로 학교의 본질과 모습을 만들어 나갔다. 행복학교 만족도는 지속해서 증가하였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고려한 개인별 맞춤형 성장이 가능했다. 2024년에는 경남교육과 행복학교 10년의 성과가 경남의 모든 학교에 스며드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도의원에게 듣는다

주
봉
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국민의힘·김해5)



**Q. 의원님 안녕하세요. ‘아이좋아 경남교육’ 소식
지 독자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 경남교육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 주촌면, 진례면, 장유2동 지역구 도의원 주봉한(김해5)입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자 소중한 보물입니다. 경남교육은 이러한 소중한 보물들이 안전하게 자라고, 풍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며 더 나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Q. 의원님께서서는 경상남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지요. 중요한 임무를 맡으신 만큼 책임감도 크실 텐데요. 어떤 기준과 방향을 중점으로 예산 심사에 참여할 계획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 교육은 우리의 미래를 개척하고 세대 간의 연결고리를 형성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통해 아이들에게 지식과 지혜를 전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나가야 하며,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이자



시작이 효과적인 예산안 심의일 것입니다. 2024년은 지난해보다 열악한 세수 여건 속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만큼 합리적인 세입을 고려한 건전한 재정 운용이 필요하므로 최적화된 재원 배분을 통해 도내 학생들을 위한 교육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했습니다. 경남 교육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되고, 그 결과물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신뢰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2023년 의원님께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한 의정활동은 무엇인가요? 더불어 2024년 계획도 함께 듣고 싶습니다.

☞ 지난해에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의정활동은 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학력보다 능력이 인정받는 일자리 마련을 위해 고졸 취업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선 것입니다. 고졸 취업으로도 충분히 자립에 성공할 수 있다면 학벌이나 스펙이 아닌 직무능력으로 정당하게 평가받는 사회가 구현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외에도 경남도 내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 활성화, 김해~창원 교통량 분산을 위한 비읍산 터널 사업의 조속한 추진 촉구, 저출산 대응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제안을 하는 등 지역의 현안 해결에도 노력했습니다. 2024년에는 학생들이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학교에서는 이론을 배우고 기업에서는 생생한 현장교육을 받으며 기술명장이 되겠다는 꿈과 비전을 갖게 하고, 현장성 높은 직업교육을 확대하여 우수한 인재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도제학교 확대에 힘쓰고자 합니다.

Q. 2024년 경남교육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지혜로운 교육은 더 나은 세상과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공동체 여러분들과 함께 지혜로운 경남교육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2024년의 경남교육은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단 1명이라도 소외받는 교사와 학생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는 따뜻한 교육이 되었으면 합니다.

경상남도의회 소식

경상남도의회, 제410회 임시회 개최



박종훈 교육감 2024년도 새해인사, 5분 자유발언 등

경상남도의회(의장 김진부) 제410회 임시회가 1월 25일(목)부터 2월 1일(목)까지 8일간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제1차 본회의(1월 25일)에서는 이찬호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남 미래교육을 위한 정책 제안과 지역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고 교육감과 도지사의 2024년도 새해인사를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제410회 임시회 제1~3차 교육위원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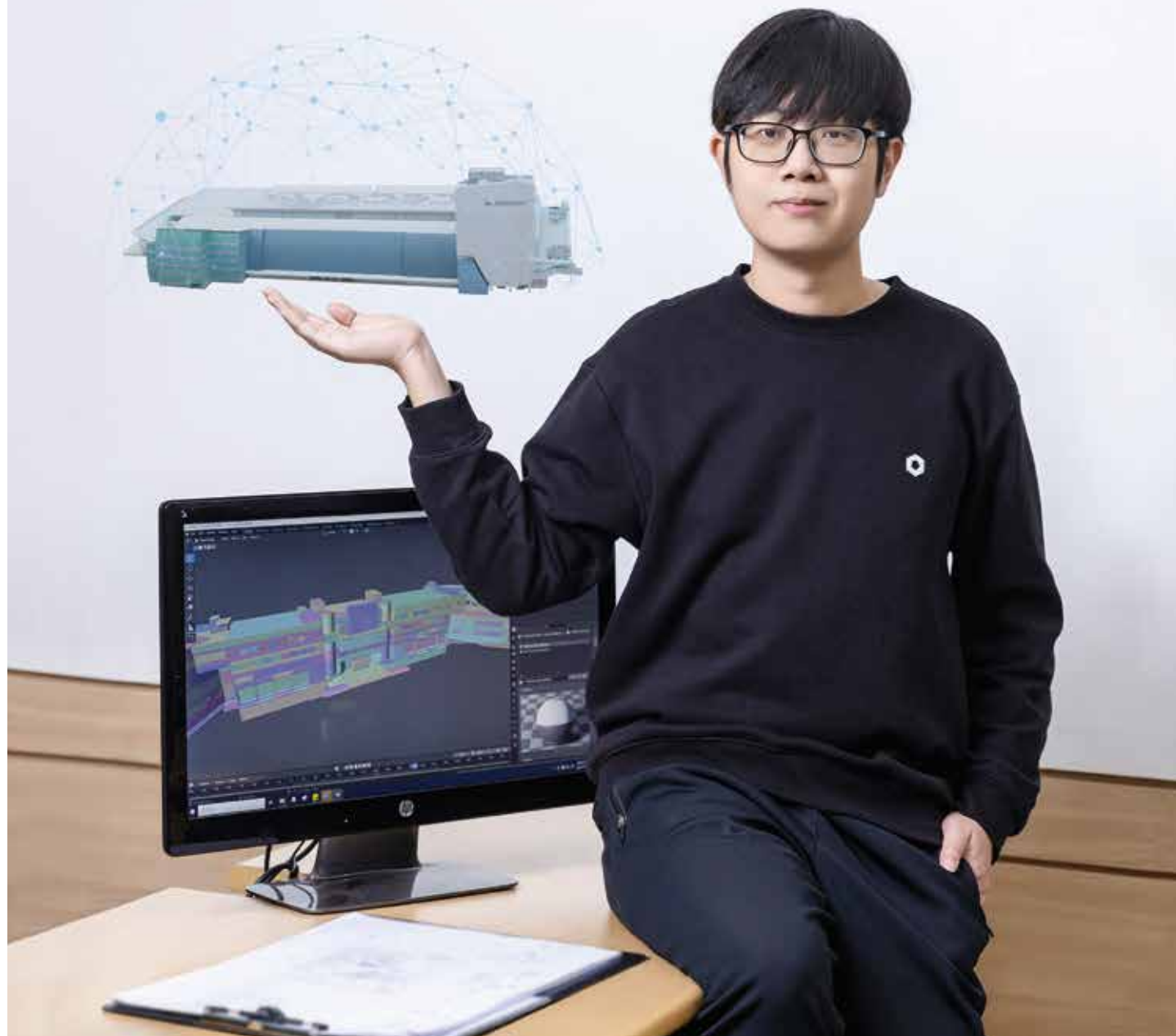
2024년도 경남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

경상남도교육청 가야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등 8개 조례안 심사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병영)는 제410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3차(1월 29일부터 30일) 교육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교육위원회에서는 경상남도교육청 가야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등 8건의 의안을 심사하고 업무협약 및 미래교육원 체험프로그램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관련 보고를 받았다. 이어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을 듣고 교육정책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우리 동네에서 일 자리를 찾았어요!

많은 청년들이 직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이 살던 동네를 떠난다.
취업할 만한 기업이 수도권에 몰려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취업이 되어도 주거부터 타지 생활까지 어려움이
뒤따른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행정안전부와 경남도가
손을 잡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 박동주 씨를 만났다.



삶의 전환점 된 3차원 실내공간정보 DB 구축사업

“대학 졸업 후 마땅히 하고 싶은 게 없었어요. 꿈과 목표가 없었던 시기 같아요. 그러던 중 채용사이트에서 선박부품 스마트 제조를 위한 ICT 기술교육을 보고 신청하게 되었어요. 교육 완료 후, 교육을 주관한 대학의 산학협력단에서 ‘3차원 공간정보 DB 구축사업’에도 참여해 보라고 추천해 주셨어요. 평소 게임을 좋아하던 터라 3차원 공간을 만든다는 것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신청한 교육이 제 삶의 터닝포인트가 되었어요.” 학생처럼 앓던 모습이지만 어엿한 직장인 2년 차인 박동주 씨는 지난 2021년 경남도에서 진행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실내공간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에 참여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멘토들에게 도면을 보는 방법부터 사진을 찍고 편집하는 법, 건물을 3차원 공간에서 만들어내는 3D 모델링 방법 등을 약 한 달간 배웠다. 이후 7개월 동안 동료들과 조를 이뤄 창원컨벤션센터, 합천보건소, 휴월정 등을 3D 모델로 제작했다.

현실과 똑같은 가상 건물 만들어 화재·재난 시 활용

그가 참여한 ‘3차원 공간정보 DB 구축사업’은 경남도가 주도해서 지역일 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재난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다중이용시설의 3차원 실내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과 동시에 지역청년들을 채용해 교육과 실무를 제공한다. “실제 존재하는 건물을 컴퓨터 속 가상세계에서 똑같이 구현하는 작업이에요. 건물의 외·내관을 360도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 후, 3D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상 건물을 제작하는 거죠. 그래서 현실과 똑같은 건물이 가상세계에도 존재한다고 해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해요.” 이렇게 구현된 3D 건물은 경남소방본부 119긴급구조시스템과 연계돼 화재와 재난 시 신속하게 구조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활용된다.

교육 수료 한 달 만에 취업 성공

“사업 공고에 우수한 인력은 채용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어요. 당시에는 크게 생각하지 않고 교육을 잘 수료해야겠다는 생각만으로 임했죠. 기계공학과를 졸업해 전공이 아니었는데도 시뮬레이션이 너무 재미있었고, 가상 건물을 하나하나 만들어나가는 과정이 무척 흥미로웠거든요.” 교육 이수를 완료한 그는 사업 종료 한 달 만에 사업에 참여한 (주)메타뷰로부터 입사 제의를 받았다. “바로 면접에 응했어요. 3D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었거든요. 저와 함께 5명의 동료들



01 360도 카메라로 건물 촬영

02 사업 참여 초기에 진행한 3D 모델링

과 함께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또 그는 사업에 참여하면서 어렵고 고민됐던 부분들을 정리해 ‘2022~2023 스마트 실내공간정보 DB 구축사업 매뉴얼’을 작성했다.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제작된 매뉴얼은 현재 사업을 진행하는 표준교육 매뉴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제는 교육 멘토로도 참여하고 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 받아

박동주 씨는 동료의 추천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 행정안전부 청년일자리사업 우수사례 공모전’에 참여해 최우수상을 받았다. “사업에 참여하기 전 나의 이야기로 시작해 지역주도형 청년일 자리를 만난 후 발전하는 모습, 취업에 성공한 이야기까지 모두 솔직하게 작성했어요. 8개월 동안 팀장을 맡아 4명의 팀원들과 함께 사업을 진행한 경험은 정말 소중한 것, 그 경험은 귀중한 자산이 되었으니까요.” 대학 졸업 후 우연히 참여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지역의 훌륭한 기업에 소속되고 상도 수상할 수 있었다는 박동주 씨. 디지털 트윈과 메타버스 분야에서 전문가로 성장하는 그의 행보가 기대된다.

<아이좋아> 1월 호 예고편 영상 댓글 이벤트

겨울 추위를 이겨내는
나만의 방법이 있다면?

☞ 민수홍 님

외출 시 목도리와 장갑은 꼭 착용합니다. 그리고 작은 보온병에 따뜻한 물을 담아 추울 때 조금씩 마십니다. 집에서는 양말과 내복을 꼭 챙겨 입습니다.

☞ 최인지 님

실내에 있을 때도 보온을 위해 꼭 내복과 수면양말을 착용해 줍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대추차를 따뜻하게 한 잔씩 마시면 감기 예방도 되고 너무 좋습니다. 특히 찬바람이 들어오는 창문에 뽁뽁이를 꼼꼼하게 붙여준 후 두툼한 암막 커튼을 설치해 주면 외풍을 막아줘 실내 온도가 높아지고 단열 효과도 아주 좋습니다. 온수 매트 위에 난방 텐트까지 준비한다면 추운 겨울도 거뜰히 지낼 수 있겠죠.

☞ 임지연 님

실내에서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 실내의 온도만큼 습도가 중요하다는 걸 아시나요? 적절한 습도가 유지되면 실내 온도가 더 오래 유지됩니다.

☞ 최성미 님

캐럴이나 신나는 음악, 때로는 부드러운 음악 선율에 따라 간단한 맨손체조를 꾸준히 합니다.

☞ 조경희 님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보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경남에는 금원산얼음축제와 같은 좋은 겨울 축제가 많이 있고, 해돋이를 보러 간다거나, 불모산 노을전망대로 가족 나들이하기에 좋습니다!

☞ 양하은 님

보온 아이템을 많이 착용합니다! 머플러나 장갑, 발열 내의 등이요! 제가 추위를 많이 타는 타입이라 이런 아이템들을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감기나 독감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찬 음료는 먹지 않고 따뜻한 차를 자주 마시는 걸 추천합니다.

☞ 박형철 님

추우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지만 저는 오히려 겨울에 더 움직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너무 웅크려 있지 마시고 바깥 활동을 즐겨 보세요.

☞ 김정현 님

추운 겨울을 이겨내는 나만의 방법은 첫 번째 체온을 높일 수 있도록 내복 등으로 몸을 따뜻하게 합니다. 두 번째 뽁뽁이를 창문에 붙여서 단열을 더 강화해 실내 온도를 높여줍니다.

☞ 광선우 님

저는 겨울철 추위를 막기 위해 내복을 입습니다. 내복을 입는 것만으로 2.5도 정도의 보온 효과가 있다고 해요. 내복을 잘 챙겨 입는 것으로도 추위에 대비할 수 있고, 난방비 부담도 줄어줄게 됩니다. 다양한 내복이 있지만 순면 내복이 체온 유지를 가장 잘 해줄 뿐만 아니라, 낮은 기온에서도 발열 기능이 가장 좋다고 해요. 나에게 맞는 내복을 입고 올 겨울도 따뜻하게 보내세요.

☞ 고순아 님

한겨울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선 몇 가지 노하우가 필요하죠. 먼저 따뜻한 옷을 입는 것이 기본이에요. 겹옷으로 바람을 막아주는 것이 중요하고, 안에는 기능성 소재로 만들어진 이너웨어를 착용하면 좋아요. 두 번째로는 손과 발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통이 길게 자라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목까지 따뜻하게 감싸는 장갑을 착용하세요. 발은 두꺼운 양말과 방한화로 보온을 해주세요. 또한 실내에 있는 동안에는 온도조절이 필요하므로 실내에서도 따뜻한 옷을 착용하고, 공간을 충분히 환기해 걸 옷을 벗고도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게 해야 해요. 이렇게 몸 전체를 따뜻하게 유지하면서 겨울 추위를 효과적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 1월 호 예고편 댓글 이벤트 당첨자 세 분에게는 개별 연락드렸습니다.

매달 <아이좋아 경남교육> 소식지 예고편 영상 시청자를 대상으로 댓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오른쪽의 큐알코드를 통해 예고편 영상 시청 후 댓글 이벤트에 참여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세 분께 치킨 기프티콘을 증정하며 당첨자에게는 개별 연락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2월 호

독자퀴즈

아이좋아 경남교육 2월 호를 집중해서 읽은 독자들만 맞힐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잘 읽고 정답을 맞춰보세요.

1. 5세 유아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개정 누리과정과 초등 교육과정 연계 수업을 통해 초등학교 입학 적응을 집중 지원하는 학기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객관식)

- ① 유·초 연계 연결학기 ② 유·초 연계 이음학기
③ 유·초 연계 하나학기 ④ 유·초 연계 함께학기

2. 다음 중 경남교육청이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마련을 위해 시행한 교통안전 3종 세트가 아닌 것은? (객관식)

- ① 가방안전덮개 ② 안전아이로 ③ 통합돌봄센터 늘봄 ④ 안심우산

3. 지구촌 국제화로 국가간 상호연결성이 강해진 지금, 공존의 가치를 이해하고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세계시민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단답형)

4. 교통안전지도 자원봉사자가 정해진 통학로를 이용하여 어린이를 데리고 안전하게 등학교하는 경남형 동행 교통안전지도 프로그램은 무엇일까요? (단답형)

1월 독자퀴즈 정답과 당첨자

- 정답 1. ② 청룡 2. ③ 하트비트 3. 김해금곡고등학교 4. 씨름
• 당첨자 진주시 사들로 유종희 님 / 남해 고현초 우현안 / 김해 주촌초 강지완

독자퀴즈 정답 보내실 곳

QR코드를 통해 정답과 이름, 연락처, 주소, 소속(교직원 및 학생인 경우)을 기재해 보내주시면 채택된 분께 2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 제출 기한 2024년 2월 21일까지
• 제출방법 QR코드를 통해 답안 작성 후 제출해주세요
• 문의 055-278-1788

* 유의사항 : 이름, 연락처, 주소, 소속 정보가 누락될 경우 정답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아이좋아 경남교육'을 읽고 느낀 점이나 좋았던 점 또는 소개하고 싶은 여러분의 이야기(자유 형식)를 아래로 보내주세요.

- 제출기한 2024년 2월 21일까지
보내실 곳 경상남도교육청 홍보담당관
(51430)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41
전자우편 gne8@hanmail.net
전화번호 055-278-1788

아이좋아 경남교육을
웹진으로 만나보세요!



경남교육 SNS

경남교육 정책과 주요 행사를 실시간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카카오톡채널



카카오톡스토리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자립과 공존의 혁신교육 10년!

모든정책을 학교중심으로



교육감 직속으로
교육활동
보호 담당관을
신설하겠습니다.



아이특독 활성화로
개별성과 잠재력을 키우는
미래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 특색
자원을 활용한
생태환경교육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캠퍼스형 공동학교를
시작으로
돌봄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GYEONGSANGNAMDO OFFICE OF EDUCATION